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주 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중학교 전통 산수화 감상 지도 방안 연구

- 풍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상 순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중학교 전통 산수화 감상 지도 방안 연구

-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중심으로 -

이 주 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상 순

인 준 서

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현대사회의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의 토대 위에 시각 이미지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수많은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역할은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시각 이미지에 대해 비평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능력과 정체성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술 감상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에 근거하여 전통 미술을 감상 수업에 접목하였다. 아울러 그 대상은 작품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를 중점으로 하는 중학생으로 하였고, 내용은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에서 대표되는 이상(理想)적 산수의 몽유도원도와 경험(經驗)적 산수인 인왕제색도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 학습의 감상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중학교 전통 산수화 감상 지도방안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비평적 탐구를 활용하여 전통 산수화 감상 지도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 및 제한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비평적 탐구의 개념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의 바탕이 되는 듀이의 탐구방법을 알아보고, 이러한 방법을 발전시켜 미술비평교육에 적용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의 이론을 고찰하여 전통 미술 감상교육의 새로운 감상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전통 산수화의

내용과 구성 방법의 교과 현황을 알아보고, 자연관이 반영된 산수화의 감상과 화론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으로 기존 사례들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기존 산수화 감상 교육과의 차별화 방안으로써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비평적 탐구 이론의 교수-학습 체계, 탐구를 유도하는 발문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여 전통 미술 감상 지도방안 설계의 토대를 제시한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전통 산수화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 가치를 소개하는 감상활동을 계획한다.

제5장에서는 계희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과 감상계획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감상 지도방안을 위한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특징의 이해와 총 3차시에 걸쳐 감상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통 미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우리 전통 미술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미술작품의 이해와 가치판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비평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수많은 시각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길러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II. 전통미술 감상 교육의 새로운 감상 모색	5
1. 비평적 탐구의 개념	5
2. 게히건(Geahigan)의 비평적 탐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	9
III. 게히건(Geahigan)의 방식을 적용한 전통 산수화 감상	21
1. 산수화 감상의 기존 사례들	21
1) 자연관이 반영된 산수화의 감상	26
2) 화론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	31
2. 게히건(Geahigan)식 감상 계획	42
1) 기존 감상 교육과의 차별화 전략	42
2) 현대적 안목으로 바라 본 전통 산수화	52
IV. 게히건(Geahigan)의 감상지도	55
1.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이해	55
2.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감상지도	62
V. 결 론 및 제언	84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비평적 담화의 진술 유형들	9
<표 2> 듀이의 탐구 과정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과정	13
<표 3>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	18
<표 4>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의 전통 산수화 관련 단원 및 내용	22
<표 5>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전(2009), 후(2011, 08) 감상 영역	42
<표 6> 비평적 탐구 이론의 교수-학습 체계	47
<표 7> 발문의 관점	49
<표 8> 게히건식의 전통 산수화 감상 계획	54
<표 9> 단원 학습 계획안	64
<표 10>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1	64
<표 11>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2	74
<표 12>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3	80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2년 7월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인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마지막 항목에는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한다”라고 새롭게 명시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

즉 우리나라 교육계가 인성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보다는 지식 중심의 주지교육만을 강화하여 이성적인 인간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학생들은 감성은 잃어버리고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또한, 현재의 무분별한 시각 정보들의 범람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시각적인 정보를 비평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지교육에 의한 이성적 판단 학습을 통해 감성이 사라지고 또한, 현시대의 시각적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인성의 함양은 물론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 자신의 주변을 비평적인 사고로 바로 볼 수 있는 태도를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대안적 모색으로 미술 감상교육을 통해 학습자 내면으로부터 정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주체성 있는 안목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미술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과목 통합에 의한 수업시간의 경감으로 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부족한 수업시간으

1)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 교육과정 총론-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2012, 07, p. 4.

로 인해 표현학습만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 미술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편중된 미술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상기하고 감상 교육을 확대하는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더불어 감상교육이 단순히 작품에 나타난 미적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해하고 나아가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미술 감상 교육에서 비평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감상 교육에서 한 발짝 나아가 비평을 통한 탐구과정, 즉 계획적인 비평적 탐구 활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여 미술 감상교육의 발전적 근거를 제시하는 수업 지도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소외당하며 서구식 기준의 가치관으로는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전통 산수화를 감상함으로써 감상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수화가 갖는 자연관과 표현의 미의식을 비평적으로 탐구하여 학생들에게 전통 산수화의 올바른 이해와 미적 감수성을 일깨워 주도록 할 것이다. 그 대상은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 시대 산수화만이 갖고 있는 미감을 느끼고 나아가 사회·문화적 배경의 탐구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미술 문화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옛 문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오늘의 세계미술문화를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²⁾ 따라서 학생들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봄으로써 21세기 문화시대의 주역으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감상교육에서 비평적 탐구감상법을 근거로 감상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수화의 자연관과 표현의 미의식,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읽고 해석하며 그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산수화에 담긴 과거 시간으로의

2) 김혜숙, 이성도, 「전통미술문화교육의 중요성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2권, 2005, p. 141.

낮설음을 낮익게 하고 감상하는 즐거운 태도를 기르는 실천적 감상교육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서 감상 및 비평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을 바탕으로 전통 산수화 감상지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국내에 소개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 전통 미술 감상교육에서 한 발짝 나아간 비평 학습, 즉 비평적 탐구 개념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을 고찰하여 적용 가능성을 짚어보고, 학생들에게 미적인 안목과 비평적 사고를 육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상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기존 산수화 감상에서 동양의 자연관과 화론을 통한 감상 사례를 들어보고, 기존의 감상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현대적 안목으로 바라본 전통 산수화 감상지도를 계획하겠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연구를 통해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에 적용하여 전통 산수화의 낮설음에 대한 감상자의 시각을 완화하고, 동시대적인 비평적 사고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지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감상교육에서 비평적 탐구의 개념과 계획의 비평적 탐구이론을 통한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둘째, 감상을 통한 비평 교육의 적용 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산수화 감상의 접근성을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혀보고자 함이다. 그러나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학교 감상교육이 탐구 과정을 통한 비평 교육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셋째,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상의 대상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초기작품인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조선 시대 후기작품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로 제한한다. 이는 조선 시대 회화사에서 이상(理想)적 산수와 경험(經驗)적 산수의 대표되는 작품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상과 경험의 개념을 취하여 비교 학습 활동의 실현 가능한 지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Ⅱ. 전통 미술 감상 교육의 새로운 감상 모색

1. 비평적 탐구의 개념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교육은 ‘정서 함양’ 또는 ‘심미적 능력 육성’ 그리고 ‘고상한 취미의 형성’ 등 교양 교육 정도로 그 의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더 이상 감상 활동이 수용적인 관조나 향수로 머무를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보다 예술 본질적인 입장에서 ‘미적 지각력 육성’ 혹은 ‘시각세계에 대한 안목의 함양’, 또는 직접적으로 ‘조형적 모순을 아는 능력의 육성’ 이라든가 ‘예술작품이 지닌 언어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의 양성’ 또는 ‘조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의식의 각성’ 등 다양한 이론으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주장하게 되었다.³⁾ 이러한 변화된 감상교육의 형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후 DBAE, (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즉 ‘학과중심 미술교육’ 운동으로 인해 미술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미술 감상’은 ‘미술사’, 또는 ‘미술비평’ 등으로 명료화되면서 미술비평이 미술과 교육과정 내에서 미술의 이해와 감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 이로써 감상교육은 교양 교육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감상형태를 마련해주었다.

비평(批評)은 사전적 정의로는 “사물의 미추(美醜), 선악(善惡), 장단(長短)등을 들추어내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로 정의 된다.⁵⁾ 또 다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물의 선악, 시비, 미추 등을 분석 논란함”, “사물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따위를 평가 함”으로 정의된다.⁶⁾ 즉 비평의 사전적 정의로는 사물의

3) 박휘락,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SIGONGART, 2003, p. 26.

4) 박휘락, 위와 같은 책 p. 44 참조 및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p. 176.

5) 동아대백과사전

6)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상(上)』, 삼성출판사, 1991, p. 1614.

미추, 선악, 장단, 시비 등을 분석하고 논란하여 그 가치를 판단, 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서 확대되어 학문적으로 비평은 비난(fault-finding), 이의 신립(taking exception), 상찬(praise), 판단(passing judgment), 비교(comparison), 감상(appreciation)의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 따라서 비평은 사물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사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함으로써 그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평의 이와 같은 기능이 넓게는 예술, 좁게는 미술에 가해지는 것이 ‘예술비평’ 또는 ‘미술 비평’인 것이다.⁸⁾

아이즈너(Elliot W. Eisner)⁹⁾는 “미술 비평이란 미적 대상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고 이해하고 이것을 서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미적 판단을 준거로 그 대상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¹⁰⁾

젤트너(Philup M. Zeltner)는 “듀이에 의하면, 비평은 판단이고 판단은 비평가와 예술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 -즉 예술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은 비평가의 지식과 감수성에 따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른바 과거 경험으로부터 그가 축적시킨 의미들에 따라, 즉 성장과 발전의 기능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

감상자는 그의 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진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어떠한 이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을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설

7) 이은적, 「미술과에서의 비평 능력」, 『조형교육』, 제22권, 2003, p. 199.

8) 박희락, 위와 같은 책, p. 57.

9)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 교수이다. 그는 교양 교육, 교육과정 개혁, 질적 연구 등 몇몇 분야에서 활동했다. 전공은 시각 예술 전공이었고, 196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조세프 쉬왈, 브루노 베텔하임, 필립 잭슨 등과 함께 공부했고 교육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이즈너의 업적은 훈련 중심 교양 교육(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에서 발표 형태들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10) E. W. Eisner, 『The Enlightened Eye』,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pp. 1~3.

이로서, 「비평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미술 감상 지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 6 재인용.

11) Zeltner, P. M, 『존 듀이 미학 입문』, 예전사, 1996, pp. 189~190.

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미술 비평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선호와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편인 것이다. 즉 비평이란 명확하게 체계화되고 타당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작품의 질과 작품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언어를 매체로 타자를 설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새롭게 이해한 가치를 타자에게 주장하고 이해를 요구하며,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다.¹²⁾

탐구(探究)는 사전적 정의로는 “진리 또는 과학 따위를 더듬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이라고 정의한다.¹³⁾ 또 다른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가설, 혹은 신념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질문의 제기, 자료의 조사, 이론의 검토 등을 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탐구는 지식, 혹은 이론의 획득이나 정립을 위한 지적 노력 그 자체나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한다.¹⁴⁾ 즉 사전적 정의로 탐구는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을 검토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김민남은 탐구에 대해서 “문제로서의 대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내려가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채는 탐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탐구란 말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으며 또한 문제 해결의 어떤 구체적인 사고기능을 가르치려고 할 때 쓰이기도 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탐구란 문제를 규명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⁵⁾

12) 김창식, 안현주, 「비평을 통한 감상 교육의 방안 연구」, 『초등교육 연구논총-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원』, 제14집, 1999, p. 141.

13) 신기철, 신용철, 위와 같은 사전-하(下), 1991, p. 3420.

14)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406&mobile&categoryId=528>.

15) 이재영, 「초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미술비평 학습의 방향과 실천 방안 모색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2002, p. 68.

즉 탐구는 문제로서의 대상을 규명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해결책을 찾아 내려가는 행위이며, 그 과정은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을 검토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평과 탐구의 개념, 즉 비평적 탐구는 명확하게 체계화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작품의 질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과정은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을 검토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통 미술 감상 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비평적 탐구, 즉 미술 작품의 비평을 위한 탐구에 주목하였다.

비평을 통한 미술 감상 학습에서는 작품의 소재, 주제, 작가, 재료, 기법 등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감상자는 그들의 일반적 인식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실에 직면함으로써 비평적 추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추론을 뒷받침할 정보, 즉 작가의 의도 및 작품에 관련된 많은 사실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탐구 욕구는 감상자의 자발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여 탐구 태도의 형성으로 발전된다. 이에 듀이는 “교육의 본질은 탐구에 있다”라고 정의 했으며, 탐구는 많은 교육자들이 강조하여온 교육의 본질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 교육 또한 미적 탐구 태도와 능력을 계발·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다.¹⁶⁾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 비평을 통한 과정은 미술작품의 미적 특질을 감수하고, 이해하고 ‘보는 눈’의 개발, 즉 미적 지각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서 전문가적 능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교육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또한 감성과 지성의 조화에 의해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¹⁷⁾ 따라서 전통 미술 감상 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비평적 탐구, 즉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일련의 탐구 과정은 감상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감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6) 김창식, 안현주, 위와 같은 논문, pp. 141~148.

17) 박휘락, 위와 같은 책, pp. 53~56 참조.

2. 게히건(Geahigan)의 비평적 탐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

학교에서 미술 비평 수업의 목적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평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탐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교육적 효과를 갖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비평적 탐구(Critical Inquiry)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주로 쓰이는 펠드먼(E. B. Feldman)의 비평 이론¹⁸⁾ 즉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에 대해 게히건은 비평을 ‘구도 또는 글로써 표현하는 담화’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비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상의 미학적 개념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미학자들의 미술 비평에서 ‘지식 전달 행위’, ‘이해 전달 행위’, ‘가치 전달 행위’의 세 가지 활동으로 비평적 담화 행위에 쓰이는 진술의 여러 가지 유형을 아래 <표 1>에서처럼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활동에서 보여 지는 비평적 담화의 진술 유형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비평적 단계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표 1> 비평적 담화의 진술 유형들

지식 전달 행위	이해 전달 행위	가치 전달 행위
기술	해석	평가
분석	설명	판단
진술	전개	권장
보고	해명	등급
특성화	정의	순위 매기기
비교	분류	산정
단언	가정	감정

18) 펠드먼의 비평 이론은 그의 저서 “Art as Image and Idea”와 “Becoming Human through Ar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비평의 과정을 기술 또는 묘사(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판단 혹은 평가(evaluation)의 네 단계로 나누었으며,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요소로 시작하여 작품에 내재된 지각적, 형식적 분석에 의존하는 형식주의 비평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수많은 교육자들의 의해 사용되어 왔고, 비평양식들의 기본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p. 178.

또한 대화와 토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직선적이며 단계적 순서의 학습으로 토론이 촉진되기보다 오히려 억제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⁹⁾

게히건이 주장하는 문제점 이외에도 펠드먼의 비평적 단계의 문제점은 감창식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나치게 형식주의 관점에서 작품의 표면적 특징에만 주의하고, 작품의 맥락적인 이해를 수용하지 못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소홀히 여기고, 작품을 감상할 때 단계적 비평양식으로 획일적이고 비순환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이외에도 예술철학의 체계성 부족 등으로 펠드먼의 단계적 절차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게히건(G. Geahigan)의 비평적 탐구에 의한 감상학습은 미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학습 과정, 즉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비평적 탐구는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어떤 과정 중에도 피드백이 가능하다.²⁰⁾ 따라서 교육적 의미를 되짚어 볼 때 미술 감상 교육의 핵심 원리는 비평적 탐구 활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히건이 말하는 비평적 탐구이론의 기본적인 배경은 존 듀이(J. Dewey, 1859~1952)²¹⁾의 탐구이론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선 듀이의 탐구 방법을 살펴보고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방법을 고찰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존 듀이의 탐구방법

듀이는 최초로 여러 형태의 탐구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습의 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학자로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 형태를 조장할 수 있는

19) G. Geahigan, “Models of Critical Discourse and Classroom Instruction : A Critical Examin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41(1), 1999, pp. 10~11. 박휘락, 위와 같은 책 pp. 230~234 재인용.

20)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pp. 179~185.

21)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운동가이다. 기능심리학을 주창하였으며 미국의 학교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준 진보주의를 이끌었다.

다양한 수업 지도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들은 교육일반에 진보주의 철학으로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미술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중심 교육운동, 비평적 사고운동, 그리고 미적 교육운동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²²⁾

듀이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거부하고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방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경험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경험을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을 반성적 사고라 하며, 이러한 사고를 통해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²³⁾

반성적 사고에서 반성이란 어떤 신념의 기초로써 사물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어떤 증언, 증거, 입증, 근거 등에 의해서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것이다.²⁴⁾ 또한 사고란 확신이나 의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불신하는 태도가 설정된 사례이다. 즉 인간이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최대한의 합리적 확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능동적 시도이다.²⁵⁾ 즉 반성적 사고는 문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촉진시키며, 정답보다는 해답을 추구하는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탐구를 도출해낸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은 계속되는 새로운 탐구를 요구하게 된다. 탐구 결과 추구된 가설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인 진리성을 갖지 못하며 하나의 가설로 또 다른 경험을 위한 도구에 불가하다. 탐구 과정은 일련의 연속된 사고 과정이며 끊임없이 추구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성장의 과정인 것이다.²⁶⁾

이에 듀이는 반성적 사고, 즉 탐구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불확실한 문제 인식 상황이다. 탐구의 과정이 시작되기 위한 선행 조

22) 김창식, 위와 같은 논문, pp. 182~183.

23) 김창식,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pp. 37~38.

24)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 69.

25) 김연희, 「질적 탐구로서의 미술비평- John Dewey의 관점에서 교육적 미술비평에 대한 재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23권 1호, 2009, p. 32.

26)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 69.

건으로서, 탐구자가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일상적 사고 또는 행동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즉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여 내적 갈등의 상태에 이른 때를 말한다. 즉 숙고(reflection)가 시작된다.

둘째, 인식된 문제점의 명료화 단계이다. 탐구자는 불분명한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가에 대한 인식을 명료화한다.

셋째, 가설 제시 단계이다. 일단 풀어야 할 문제점이 부각되면 이 단계에서 탐구자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즉 가설을 설정한다.

넷째, 결과의 추론이다. 가설을 내세운 뒤, 탐구자는 그들이 생각한 가설에 대한 결과를 추론한다.

다섯째, 가설의 검증이다. 탐구자는 그가 세운 가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거나 관찰활동을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반성적 사고, 즉 탐구 과정에는 통제 가능한 인간의 지적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정신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문제가 초기 상황인 ‘불확실 상황’ 과 ‘가설제시’ 상황은 의지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불확실 상황은 탐구자의 의지와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²⁷⁾

듀이는 경험이라 불리우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을 반성적 사고라 보았으며, 학교 교육은 이러한 사고방법을 통한 경험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개인의 성장발달과정이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발달은 학습자 자신의 흥미와 욕구 그리고 삶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따라서 미술 교육 또한 학습자의 관심과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삶과 관련된 내용과 능동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27)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p. 183 및 김창식, 안현주, 위와 같은 논문, p. 146.

28) 김창식,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p. 43.

2)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방법

미술 교육에서의 탐구는 먼로(Thomas Munro)와 발칸(Manuel Barkan)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그러나 타 교과서와 같이 실천적 방법을 위한 연구는 게히건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히건은 절차적이고 담화가 주를 이루며 형식주의적 성격을 갖는 펠드먼의 미술 비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비평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듀이의 탐구과정을 감상교육 방법에 적용하여 비평적 탐구(Critical Inquiry)과정을 제시한다. 이에 게히건은 듀이의 탐구과정을 근거로 비평적 감상능력 신장을 위한 비평적 탐구 과정을 아래 <표 2> 와 같이 제시한다.²⁹⁾

<표 2> 듀이의 탐구 과정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과정³⁰⁾

과정	존 듀이의 탐구(inquiry)과정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Critical inquiry)과정
1	문제 인식 상황 (탐구의 선행 조건)	미적 탐구의 초기적 조건으로 탐구 대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한다. 작품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하지 못한다.



2	문제를 명료화 한다.	주어진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 나가는 단계이다. 비평자는 작품의 장점이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내재된 조건들을 명확하게 관찰함으로써 확실한 요소들을 찾아내면서 이해에 대한 부족을 깨닫게 된다.
---	-------------	---



29) 김창식, 위와 같은 논문, p. 40.

30)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p. 184 및 김창식,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pp. 40~41.

3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들이 떠오른다.	탐구 대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미적 비평자에게 떠올라 탐구대상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들이 형성된다.
---	----------------------	---



4	탐구자가 가설들의 결과들을 추론한다.	비평자는 지금까지 형성된 탐구대상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들의 결과를 추론한다. 추론은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하거나,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 또는 작가에 관한 사실들로 하여금 가설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가설들은 감상자에게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영향을 주게 된다.
---	----------------------	---



5	수집된 관련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설에 의해 예측되었던 것들을 검증한다.	의미에 대한 가설들이 작품의 세밀한 관찰, 작가나 작품 제작의 관련 맥락에 대한 배경적 정보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	--	---



6	결론의 적용 또는 응용한다.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결론들은 다른 미적 대상의 의미와 가치 결정에 적용한다.
---	-----------------	--

이러한 단계들은 단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닌 순환이고 단축적이며 특정한 과정에 의존될 수 있는 융통적인 사고 진행 과정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러한 특징은 감상자의 개인적 능력과 태도에 따라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의 비평방법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작품에 대한 절대적이며 정확한 이해는 없다. 비평적 실천에는 미학적 이해와 의도적 이해가 혼합되어 있다.

둘째, 자서전적, 맥락적 정보는 작품의 이해를 분명하게 한다.

셋째, 감상자의 인지와 이해는 그 사람의 인지 배경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즉 작품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작품은 작가가 인식하지 못한 생각과 원리를 예시할 수 있다.

넷째, 작품의 개인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비평적 실제에 있어 타당한 부분이다. 감상자는 작품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추구한다.³¹⁾

또한, 케히건은 듀이의 탐구 이론과 미술비평을 연결시켜 감상교육 방법을 제시하면서 미술비평에서의 탐구는 다른 교과에서의 탐구와는 다른 문제와 방법의 개념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에 미술비평에 있어 탐구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미학적 개념과 비평 기술지도’, ‘학생 연구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³²⁾ 이는 기존 감상교육에서의 비평학습과는 다른 방법이다.

(1)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비평적 탐구는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작품과의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을 처음 대하면 어떠한 확신도 하지 못한다. 즉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조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적 반응 활동에 있어서 비평적 반성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그들의 최초 반응과 다른 학생들의 최초 반응을 접함으로 각기 다른 견해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작품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접할 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교사는 관련된 미술 작품과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소재, 양식, 기능, 주제가 유사한 작품들의 탐구는 표현적 특성의 차이점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예술적 의도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찾아낼 수

31)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 74.

32) 김창식,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p. 41.

있다. 작품에 대한 비교는 같은 장르 내의 작품 비교, 같은 화가의 초기, 후기 작품 비교, 재현적인 미술 작품과 그 주제의 사진 비교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교사는 ‘의외적인 작품’을 학습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도록 미술에 대한 신념과 가치체계에 상반되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자극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는 작품을 경험하도록 한다.

교사는 처음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질문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토론과 쓰기 과제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또한 학생과 함께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공동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이런 개인적 활동을 통해 미술 작품에 대해 반응하는데 자신감을 얻고 그들의 초기 반응에 비평적으로 반영하는 습관이 발달하게 된다.³³⁾

(2) 미학적 개념과 비평 기술지도

미술작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사는 적절한 개념, 원리, 기술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³⁴⁾ 먼저 시각적인 반응을 확대하고 정교화하기 위하여 미학적 개념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와 다른 기술 역시 필요하다. 개념과 기술지도에 있어서 교사는 의미와 가치 탐색, 즉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나 학생 연구 활동의 조력자나 협력자이기보다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권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개념 및 기술 지도는 형식주의의 단계적 절차에 의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개념지도는 미술작품이나 도표, 기타 시각적 기자재의 사용

33)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p.75~76 및 이로서, 위와 같은 논문, pp. 30~31.

34) 박휘락, 위와 같은 책, p. 238.

을 통해 개념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때로는 정반대가 되는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개념의 예가 되지 못하는 미술 작품이나 다른 예들을 가르치는 것은 작품의 이해를 돕는 유익한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억하고 의사소통하기 쉽도록 개념에 붙여진 용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더 깊은 토론과 과제를 통하여 개념을 적용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개념을 완전히 터득했는지 관찰하고 때마다 개념의 정의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³⁵⁾

(3) 학생 연구 활동

미술 작품에 대한 순수한 참여는 작가와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므로 개인적인 반응활동 이상의 발전적인 탐구의 기초가 된다. 작품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만으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지 못하므로 학생들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지식과 기능, 그리고 작가에 대한 전기적인 지식과 맥락적 지식 등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³⁶⁾

이에 대해 교사는 작품에 관한 이야기나 짧은 강의, 또는 독후감 등을 통해 학생이 획득해야 할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가능하면 학생들 자신의 독립적인 프로젝트에 의하여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다. 프로젝트는 ‘문제의 명확화’ 단계에서 결정된 문제이면 될 것이다. 이들 문제들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서 공동으로 탐색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준비해준 참고서적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³⁷⁾

위에서 살펴본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미학적 개념과 비평 기술지도’, ‘학생 연구 활동’은 비평적 탐구 활동을 위한 세 가지 세부 활동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3> 과 같다.

35)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 81 및 이로사, 위와 같은 논문, p. 32.

36) 이로사, 위와 같은 논문, p. 32.

37) 박휘락, 위와 같은 책, p. 238 및 김연희, 위와 같은 논문, p. 317.

<표 3>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³⁸⁾

비평적 탐구 활동		
◎ 미술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 활동 - 작품에 보이는 특징 찾기 - 비미학적 특성 찾기 - 문제 인식하고 분명화 하기 -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하기		
◎ 개념 및 기술 개발 ◎ 학생 연구 활동	◎ 학습자료 읽기 ◎ 장기 프로젝트 학습 ◎ 인터넷 활용	미적 개념 정의 소개
	◎ 미술관 관람 ◎ 참고서적 읽기 ◎ 도서관 활용	미학적 용어로 비평하기
◎ 작품의 특징을 미학적 용어로 소개하기 ◎ 습득한 개념을 학습한 작품에 적용 ◎ 다양한 수작업 ◎ 습득한 지식 나누기	초기 개인적 반응의 변화 확인	
◎ 판단하기 ◎ 결과 일반화하기 ◎ 다른 작품에 적용 및 응용하기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은 기존 감상 교육에서의 비평학습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 활동을 장려하며, 미학적 개념과 비평 기술지도에 있어 교사의 권위자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탐구 활동에 있어 교사의

38) 김창식, 위와 같은 논문, p. 42.

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추구하는 탐구 활동 과정은 전적으로 학습자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정에 있어 다양한 학생 연구 활동을 장려하며 여러 가지 학생 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학습구조를 지니고 있다.³⁹⁾ 즉 학생의 개인적 반응과 다양한 연구 활동의 과정으로써 전적으로 학습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 교사의 권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이루는 학습구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 즉 탐구 과정을 근거로 형식주의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타 교과와는 다른 문제와 방법의 개념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감상 교육에서의 비평학습과 다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즉 미술 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반영하고 맥락적 정보를 토대로 토론과 연구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비평하며 주관적인 해석을 주고받는 열린 비평학습이다. 이에 비평적 탐구이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적이고 융통적인 사고 진행 과정으로서 반성적 사고 과정과 학생의 연구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탐색과 발견에 초점을 둔 탐구 중심의 학습, 대화 중심의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자유로운 비평과 작품해석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작품에 대한 관찰과 함께 작가나 작품의 맥락적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과 맥락에 근거한 상호작용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비평적 사고를 돕는 교사의 다양한 발문을 중요시한다. 게히건에 따르면 미술 비평 활동은 작품에 대한 가치보다는 작품과 해석자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 관련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적절하고 다양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와 토론활동을 촉

39) 이영희, 「탐구활동을 통한 미술지도 방법 탐색과 방안 연구」, 『미술교육 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p. 59.

진해야 한다.⁴⁰⁾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감상 교육의 목적은 감상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열린 사고(open-minded)’의 자세로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도 ‘open-ended’ 한 태도로 다양성과 포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를 근본 목적으로 두면서 학습 방법도 개방적이고 확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 감상에 이런 태도는 장차 감상자가 어떠한 미술 작품에 접했을 때도 올바른 감식안과 태도를 가지고 탐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에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학습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태도와 비평학습을 통한 탐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 과정으로써 작품을 대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하려는 능동적인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는 교육적 효과와 위의 감상 교육의 목적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감상 교육으로서의 교육적 의의와 적용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40) 백명주,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 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p. 47~48. 양재진, 「펠드먼과 게히건의 미술비평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2009, pp. 49~50 재인용.

41) 김창식, 안현주, 위와 같은 논문, p. 156.

Ⅲ. 게히건(Geahigan)의 방식을 적용한 전통 산수화 감상

1. 산수화 감상의 기존 사례들

미술 교육에서 감상 교육은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전통미술 감상교육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교과서의 구성과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통 산수화 감상 지도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 산수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기존의 전통 산수화 감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미술 교과서에는 서양과 동양에 걸쳐 많은 작품의 도판과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전통 미술 문화 교육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우리의 조형사상과 논리로 우리의 미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판적 문화 읽기의 시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⁴²⁾ 따라서 본 연구자가 선택한 교과서의 대상은 2009년 새롭게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중학교 ‘2007 개정교육과정 미술 교과서’ 총 9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9종의 미술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감상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의 전통 산수화 관련 단원 및 내용은 다음 <표 4> 와 같다.

42) 이성도 외, 『전통 미술 문화 교육』, 미진사, 2005, p. 22.

<표 4>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의 전통 산수화 관련 단위 및 내용

출판사	저자	영역	단원명	주제	내용	페이지
(주)교학사	노영자의	감상	미술의 흐름	미술 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미술	188 - 191
			미술 작품과 감상	미술 작품의 주제와 특징,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고,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	수묵으로 표현된 아름다움	212
교학연구사	이성도의	감상	전통회화의 종류	전통회화의 종류에 대해 알고 감상한다.	산수화, 영모도, 기명절지화, 화조화, 초충도, 어해화, 풍속화, 초상화	204 - 205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유산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문화적 배경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진경산수화	206 - 209
두산동아	고승혜의	감상	전통회화 감상하기	전통회화를 감상하고, 작가가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본다.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표현방법, 표현재료 따른 감상	82 - 85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	우리나라 미술 작품과 동양, 서양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각, 나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 해본다.	선사 시대 미술, 삼국 시대 미술, 통일 신라 시대 미술, 고려 시대 미술, 조선 시대 미술, 근대 미술, 현대 미술	190 - 193

(주) 미래엔 컬처 그룹	안혜영 외	감상	내가 좋아하는 미술	미술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해 본다.	두 작품 비교하면서 감상하기(정선,인왕제색도/위트릴로, 파리의 골목)	174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주요 미술품을 알아본다.	선사시대 미술의 시작, 삼국과 불교 미술,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고려의 귀족 미술, 유교와 관념의 미술, 실학과 실용의 미술, 개화와 일본 강점기 미술, 우리나라 미술의 세계화	194 - 199
미진사	조중현 외	감상	전통회화의 세계	전통 회화의 소재에 따른 종류를 알고 감상한다.	산수화, 산수화 속 시점, 문인화, 풍속화, 기명절지, 초충도, 영모화, 민화	150 - 155
			전통 회화의 계승과 활용	전통 회화를 이용해 새로운 주제와 기법으로 표현해 보고 현대 작품을 감상한다.	화가의 작품 (이른아침, 박래현/산고수장, 이상범/행여-순례길, 박종갑/책거리, 곽수현)	156 - 157
			우리 미술 탐험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시대별 흐름(선사,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분야별 흐름(회화, 조소, 공예, 건축)	194 - 197
일진사	김용숙 외	감상	미술작품의 이해	미술 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선사시대 한국미술, 고구려 시대 미술, 백제시대 미술, 신라 시대 미술, 통일 신라 시대 미술, 고려 시대 미술, 조선 시대 미술, 근대 미술, 현대 시대 미술	178 - 190

지 학 사	김 정 희 의	감 상	마음과 함께 하는 풍경	동양에서 자연 바라보기	산수화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실경산수, 관념 산수, 동양화의 삼원법)	20 - 21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	정선의 진경산수화 작품의 감상과 이해	25
			미술의 흐름	시대적,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선사시대 미술, 삼국 시대 미술, 통일 신라 시대 미술, 고려 시대 미술, 조선 시대 미술, 근대 미술, 현대 미술	190 - 199
(주) 지 학 사	김 용 주 의	감 상	미술 작품과의 만남	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현 양식을 이해한다.	보이는 세계 마음의 세계 (몽유도원도, 무용단, 세한도)	210
			우리나라 와 다른 나라 미술의 발자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미술	218 - 219
(주) 중 앙 교 육 진 흥 연 구 소	박 은 덕 의	감 상	전통회화 깊이알기	진경산수화, 문인화, 민화의 특성을 알고 이해한다.	진경산수화, 문인화, 민화 작품 감상, 전통회화 새로운 표현	110 - 115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선사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의 미술	172 - 181

위의 표와 같이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미술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영역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용 구성면에 있어 외형적이고 표면적이며 지식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9종의 교과서에서 구성된 주제와 내용이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미술의 시대별 흐름’ 또는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 등 주제만 다르게 제시되어 있을 뿐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일부분만을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이해와 탐구 측면에서의 감상활동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교학사)는 수묵의 특징에서 정선의 산수화 작품의 도판 및 관련된 설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학연구사)는 ‘산수화는 산과 강 등 자연 풍경을 그린 것으로 전통 회화에서 중요한 장르로 여겨져 왔다’는 내용과 함께 작품의 도판이 구성되어 있으며, (두산동아)는 작가의 시각, 표현방법, 재료의 관점에서 산수화의 감상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미래엔 킬러그룹)은 우리나라의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프랑스의 풍경화가 위트릴로의 작품을 비교하는 감상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타 교과서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미진사)는 ‘산수화란 산과, 들 계곡 등의 자연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이상향을 그린 관념 산수화’와 ‘실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의 정의 및 산수화 속 시점의 삼원법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진사)는 조선 시대 이상좌의 <송하보월도>와 문청의 <누각산수도>인 작품의 도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타 교과서 보다 내용 구성이 미미하게 제시되어 있다.

(지학사)는 ‘동양의 풍경화를 산수화’라고 하며, 관념 산수와 실경산수의 정의 및 동양화의 삼원법과 정선 작품의 특징, 준법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지학사)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인 작품의 도판과 간단한 설명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는 진경산수화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9종의 감상영역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 관련 내용은 산수화, 관념 산수화,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의 정의와 광희의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제시한 삼원법 또는 겸재 정선의 작품에 관련된 특징과 준법 등 형식적인 설명으로써 감상 영역이 다뤄지고 있다. 또한, 작품의 도판은 작품과 관련된 내용

이긴 하나 이 또한 형식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감상에 있어 효과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배경, 상황에 관하여 탐구의 자세가 생기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술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작품의 기법, 재료, 조형요소·원리 외에도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나 제작되었던 사회·문화적 상황, 가치관들을 고려해야만 진정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참고 도판과 내용 구성은 작품의 외형이나 표면적인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미술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이 뒷받침될 때 탐구가 촉진되는 감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1) 자연관이 반영된 산수화의 감상

산수화는 동양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예술적 표현체이다. 산수화가 비록 그림 속에서는 자연의 형상을 드러낼 뿐이지만, 동양 자연주의 예술에서는 자연, 그 자체를 만물이 시작 내지 영원한 존재 또는 일종의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미의 대상으로 추구하였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정신적 차원에서 매개체 내지 통로로서 존재하기에, 인간에게는 회화 예술이라는 예술미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감상하며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산수화가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된 사상적 배경인 동양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개념과 그것을 토대로 예술정신을 탐색해 본다면 보다 깊이 산수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동양은 우주 및 자연과 인간 및 만물을 유기적 관계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우주의 원리를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각각의 원리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

43) 지순임, 『한국 회화의 미』, 미술과 문화, 2012, p. 102 및 지순임, 위와 같은 책, p. 30.

에 의해 우주만물의 변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은 생명을 제공하고 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올라 저절로 움직이며, 고요한 상태에서는 수평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지닌다. 물은 작은 틈새도 지나치지 않고 채우며,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얼음이 되면 단단해지고, 수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나무는 봄에 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빈 가지가 된다.⁴⁴⁾ 자연이 갖는 이런 특성들은 우주만물의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물질적 속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철학적 개념을 심어 준다.

동양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에 자연을 주제로 하는 철학사상이 나타난다. 학자들은 자신의 학설을 수립하는 철학자들로써 본래의 의도가 학문적인 관점을 설명하거나 비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관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사상을 이끌어온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⁴⁵⁾와 노자(老子, 기원전 570~479)⁴⁶⁾ 그리고 장자(莊子, 기원전 370년 전후~300년 전후)⁴⁷⁾의 사상에서는 비교적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노자의 도덕경(25장)에 보면, “인법지(人法地), 지법천(地法天), 천법도(天法道),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글이 있다. 즉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⁴⁸⁾ 이는 자연을 모든 생성변화의 소유법칙이 되는 최고의 개념인 도(道)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⁴⁹⁾ 곧 자연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동양인들

44)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문화-2판』, 학지사, 2007, p. 244.

45) 춘추시대의 학자, 정치가, 사상가, 유교의 개조로서 중국 최고의 성인이다.

46) 춘추시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47) 춘추시대의 도가(道家)의 사상가이며, 노자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신영복, 『나의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4, p. 254.

49) Chang, Chung Yuan, Creativity and Taoism, The Julian Press Inc., 1963, p. 109.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9, p. 31 재인용.

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은 바로 도(道)라고 생각한다. 도(道)는 천지자연 조화의 이법(理法)이요, 이 세계를 일관하는 우주적 질서인 것이다.⁵⁰⁾

또한 도덕경(32장)에 보면, 비도지재천하, 유천곡지여강해(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라는 글이 있다. 즉 도가 천하에 있음은 시내와 계곡이 강과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 이글의 의미는, 첫째는 작은 냇물이 흘러들어 큰 강이나 바다를 이루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유현한 도(道)가 온 천하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강이나 바다로 모든 시냇물이 귀속되듯이 도(道)에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귀순한다는 뜻이다. 작은 냇물이 귀속되듯이 도(道)에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귀순한다는 뜻이다. 작은 냇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서 자연적으로 큰 바다에 이룸을 자연필연이라 하듯이, 노자는 이런 자연이 갖고 있는 본성, 자연성, 우주성에 대해 ‘무위자연(無爲自然)’⁵¹⁾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도에 내재하는 필연의 힘’이며, ‘도(道)작용의 자기전개’에 의해 그렇게 됨을 말한다. 산, 물, 나무, 계절의 변화 등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道)의 작용에 의해 그렇게 보여 진다. 따라서 자연에 작용하는 도(道)의 실체를 그려내는 산수화는 작가의 작위적이거나 인위적이기보다는 무심에 의한 무위적인 행위에 의해 자연의 실체가 화폭에 그려짐을 강조한다.⁵²⁾ 즉 자연 그 자체를 본받아야 할 도(道)라 규정되었고, 물(水)은 도(道)를 잘 보여주는 자연물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산수화는 자연의 실체였다.⁵³⁾ 또한

‘최상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 물을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못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道)에 가깝다.’

노자 『노자』, 제 8장중에서.

50) Chang, Chung Yuan, 위와 같은 책, p. 4. 지순임, 위와 같은 책, p. 31 재인용.

51)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지닌다.

52) 김성숙 외, 위와 같은 책, p. 245.

53)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p. 25.

라고 말한다. 이에 공자는 『순자』에서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고 모든 거센 생명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은 덕(德)과 같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논어』에서는 ‘어진 이(仁者)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智者)는 물을 좋아 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연 즉 물에 있어 노자는 선(善)을, 공자는 덕(德)을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자는 어진 자(仁者)로 비유하였는데, 옛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실체로 삼기도 하였다. 산수화에서 보여 지는 산과 강, 계곡 등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연의 법칙에 거슬리기 보다는 자연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 자신을 좀 더 열어가고 완성시켜 가는 숭고한 삶의 정신을 의미한다. 산수화에 보여 지는 자연은 이런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자연이 상호간에 융합되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추구하듯이 인간의 삶도 그런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함을 은연중에 제시한다.⁵⁴⁾

장자는 ‘자연’은 전체적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변화, 생성을 지속시켜 영원하며, 자연 그대로 무위하면서도 유위하고, 만물이 각기 자기모습과 기능대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며, 꾸밈없이 진실하고 모든 것을 배타하지 않고 감싸며 포용한다고 말한다. 이런 ‘자연’적인 것은 무위와도 관계가 있다. 무위의 세계에서는 우주만물의 이치가 지혜롭게 터득되며, 허정지심(虛靜之心)의 맑고 고요함에 의해 자연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화폭에 전이된다. 이에 자연과 인간을 함께 중시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대 화해를 이룬 세계를 ‘도(道)와 하나가 되는 도통위일(道通爲一)’ 경지로 보았고, 그 경지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를 덕이 높은 사람으로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보았다. 물화(物化)⁵⁵⁾되어 주객합일이 되었을 때 작가의 마음은 한없이 맑고 조용해지며, 아무런 잡념과 티끌이 존재하지 않는 정적인 세계에서 우주만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자연과

54) 김혜숙, 「전통산수화의 자연관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재해석 및 철학적 담론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1권, 2001, pp. 120~121 및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pp. 24~25.

55) 사물로 변화함의 의미를 지닌다.

의 교감이나 일체감은 자연이 갖고 있는 실체를 나뉘 드려내게 한다. 그림은 비언어적이라 하지만 자연이 갖고 있는 비실체적, 추상적인 요소들은 사유와 관조에 의해 작가가 작업 시 화면에 실체성을 띠고 표출된다.⁵⁶⁾ 그림으로써 자연을 담은 산수화는 작가의 인격정신이 구체화 되어 표현되며, 최고의 인격은 자연과 더불어 합일이 되어야 한다.

동양 예술사상의 핵심인 도가, 유가, 불가에서는 우주만물에 편재하는 자연성을 획득하기 위해 마음의 사사로운 잡념을 없애고 순수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우주만물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을 보게 된다. 작가 역시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성을 솔직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요해지고 비어 있어야만 모든 대상(境)을 받아들일 수 있다.⁵⁷⁾ 그리하여 자연과 작가 자신이 하나가 되어 우주적 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⁵⁸⁾

유가와 도가의 자연 개념은 자연에 대한 기존의 이성적 이해 위에 강력한 의미를 더해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 부여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려는 덕목들은 자연과 상통한다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계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 최고의 인격적 덕목을 가지며 도가 구현된 물상이며 나아가 고상한 인격의 발휘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확정 지어주었다. 이러한 자연관이 곧장 산수화라는 시각예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동양의 산수화라는 회화 장르가 만들어지고 중심화목(畫目)이 되어 지속 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된다.⁵⁹⁾ 이상과 같이 산수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의 자연관과 그것을 토대로 예술정신을 탐색해보았다. 이런 동양철학의 특성은 인간이 자연과 합일되어 서로 융화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서로 관통되어 있는 까닭에, 자연과 인간본성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⁶⁰⁾ 따라서

56) 김성숙 외, 위와 같은 책, pp. 245~246.

57) 김성숙 외, 위와 같은 책, p. 247.

58)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1992, p. 29.

59) 고연희, 위와 같은 책, pp. 25~26.

60) T, H, Fang, The Chinese View of Life, The Union Press Hong Kong, 1957, pp. 20~21.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9, p. 31 재인용.

동양의 자연관과 그 예술정신을 파악한다면 산수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양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개념과 예술정신의 의미를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전통 미술 감상교육의 새로운 방법인 비평적 탐구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개인적 반응과 자연스럽게 탐구활동으로 연계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통 산수화를 감상한다면 동양의 자연관과 예술정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론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

산수화가 제대로 그려지기 이전까지의 화론⁶¹⁾은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가지고 작품의 품격을 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산수화가 인격 수양의 방편으로 성정(性情)⁶²⁾을 도야하게 되고 동시에 감상용으로 변화되면서부터 회화 이론의 가치가 높아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화론이라고 하면 그림이나 화가에 관한 평론이나 수필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데, 중국화론의 내용은 대체로 그림의 이치, 그림 그리는 법, 그림의 비결, 그림에 관한 시, 그림의 좋고 나쁨을 비평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평론, 그림의 계보, 그림이야기, 그림에 관한 사적을 살펴 수양의 기본을 서술한 이론, 오래된 그림과 그림에 쓰여진 글, 그림을 찬양하는 글 등 그림을 배우는 원리와 방법 및 비평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 특색이 있다면, 각각의 화론은 저마다 혁신적이며 독창적 이론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선대의 전통적인 저술을 보완, 수정, 삽입 또는 뜻을 쉽게 풀이하여 엮어서 지은 것이 내려져오며 당시의 사상에 맞게 전개 또는 발전된 것이다.⁶³⁾ 즉 화론은 창작, 감상, 비평을 하며 품평에 이르러

61) 동양 산수화론의 내용은 산수의미를 표현하려는 기교를 버리고 인위의 흔적을 적게 하여 자연의 정수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을 품평하는 데에도 화려하게 색칠하고, 가늘고 경박하게 그리며,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품(下品)이라 평했고, 소박하고 서툴더라도 자연의 정수를 표현하여 자유분방함과 자유로움이 표현되었으면 회화품격이 높은 신품(神品) 내지 일품(逸品)이라 평하였다.

62) 인간의 본성과 구체적인 감정의 시원(始原)에 대한 해석 및 양자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63)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1, pp. 44~46.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 수정, 삽입되어 그 당시의 사상과 함께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론에 제시된 산수 표현의 방법과 형식을 토대로 보다 깊이 산수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살펴보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화론에 제시된 내용을 통한 산수화의 이해 및 감상으로써 그 대상은 산수화 표현기법과 구도, 정신성 등의 몇 가지 특징만을 제시한다.

(1) 기운(氣韻)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

중국 남제(南齊)의 사혁(謝赫, 500~535년 경)⁶⁴⁾은 『고화품록古畫品錄』에서 회화창작과 비평에 있어 육법을 제시한다. 기운생동(氣韻生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 경영위치(經營位置), 전이모사(轉移模寫)의 여섯 가지다.

전이모사는 옛날의 그림이나 자연을 전하여 모사하는 것이며, 경영위치는 구도를 잡는 일이다. 수류부채는 사물에 따라 색을 칠하는 것이며, 응물상형은 사물에 따라서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골법용필은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선을 고르는 것으로 이처럼 각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운생동(대상의 개성적인 풍격이 화면에서 살아 약동하는 듯이 그리는 것으로 사실상 인물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은 가장 정신적인 내용과 관련되면서 육법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⁶⁵⁾ 하지만 기운생동은 육법 중 가장 중요한 제1기준으로,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개괄할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생명력을 개괄했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 특히 회화의 본질에 대한 가장 총괄적인 최고의 준칙(準則)이 되어 중국 회화 미학의 핵심을 이룬다.⁶⁶⁾ 따라서 사혁이 제시한 육법의 제1기준의 기운생동의 이해는 학생들에게 산수

64) 정확한 생졸년과 출신지 및 경력은 미상이다. 인물을 잘 그렸으며, 화가로 서보다도 화론가로 더 유명하다. 저서는 육법을 제시한 『고화품록』으로 중국 고대 화론서이다.

65) 변영섭 외 역, 『화안』, 시공아트, 2004, p. 13.

66) 변영섭 외 역, 위와 같은 책, p. 14.

화의 이해 및 감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당말, 오대(五代)의 형호(荆浩, 870년경~930년경)⁶⁷⁾는 산수화론인 『필법기筆法記』를 제시한다. 필법기에서 제시한 ‘육요’는 형호가 전문적으로 산수화 창작을 위해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으로서 사혁이 인물화에 제시했던 육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육요는 확실히 육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니, 산수화의 특수한 요구와 형호 자신의 창작 실천에 근거해 육법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육법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⁶⁸⁾ 또한, 형호는 “6요(六要)와 2병(二病)”⁶⁹⁾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산수화에 있어 기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필법기에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무릇 그림에 여섯 가지 요체(六要)가 있으니, 첫째는 기(氣)요, 둘째는 운(韻)이요, 셋째는 사(思)요, 넷째는 경(景)이요, 다섯째는 필(筆)이요, 여섯째는 묵(墨)이다.

첫째 기(氣)란 마음이 붓을 따라 움직여 상(象)을 취함에 미혹됨이 없는 것이다. 둘째 운(韻)이란 필적을 숨기고 형상을 세워 모습을 갖추는데 속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사(思)란 깎고 덜고 크게 요약해 생각을 응축시켜 사물을 그리는 것이다. 넷째 경(景)이란 법도를 세우는데 때에 의거하고, 묘(妙)를 찾아 진(眞)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필(筆)이란 비록 법칙에 의거하기는 하나 운용에 따라 변통하여 질(質)만을 취하지도 않고 형(形)만을 취하지도 않아 마치 나는 듯하고 움직이는 듯한 것이다. 여섯째 묵(墨)이란 높고 낮음에 따라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며 물체에 따라 얇기도 하고 짙기도 해 문채(文采)⁶⁹⁾가 자연스러워 마치 붓으로 그리지 않는 듯한 것이다..... 형호의 2병은 ‘유형의 병’과 ‘무형의 병’에 대한 것으로 회화창작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를 총결한 것이다. ‘유형의 병’(有形之病)이란 꽃과 나무가 때에 맞지 않고, 집은 작는데 사람은 크며, 혹은 나무가 산보다 높고, 다리

67)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오도자(吳道子)의 필법과 항용(項容)의 묵법을 결합시키고자 했는데, 이는 당대의 기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산수화에 있어서 사실적인 묘사를 가능케 하는 기법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법으로 중국 산수화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저서 『필법기』에는 예술관이 잘 나타나 있다.

68)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 176.

69) 문장의 아름다운 광채를 말한다.

가 독에 오르지 않아, 그 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와 같은 병은 고쳐 그릴 수 없다. ‘무형의 병’(無形之病)이란 기와 운이 모두 빠지고 물상이 완전히 어그러져 필묵이 비록 행해지기는 했지만 죽은 물상과 같아拙격(拙格)에 떨어진 것인데, 이는 깎아 고칠 수도 없다.⁷⁰⁾

필법기에 제시한 산수화론에서 형호는 기운을 기(氣)와 운(韻)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에 대하여 “마음이 붓을 따라 움직인다”(心隨筆運)는 것은, “붓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筆隨心運)것이다. 이는 화가의 사상이 용필을 통솔해 형상을 묘사해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분명한 주견이 있게 되어 상을 취하는 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에 대하여 필적은 형상에 이바지해야 하며 형상을 벗어나 단독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⁷¹⁾ 따라서 형호가 말하는 기운이란 화가의 사상을 통해 형상을 묘사해야 하며 형상을 벗어나서 단독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림에 있어서 단순히 외형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기운이 담긴 형상을 그려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형호는 ‘2병’에서는 ‘유형의 병’은 부분의 세부적인 결점이지만, ‘무형의 병’은 신사(神似)와 형사(形似) 및 필묵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작가의 예술적 능력과 심미관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는 전체적인 화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무형의 병은 기실 그림의 격조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운이라는 것은 대상의 외형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격조, 즉 정신적인 것 까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⁷²⁾

사혁의 기운생동은 생명력 즉 회화의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형호의 기운은 화가의 사상, 즉 기운이 담긴 형상이 표현된 정신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생명력과 기운이 표현된 정신성을 이해하면서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70)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p. 176~184.

71)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177.

72)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184.

(2) 이동시점과 삼원론(三遠論)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

중국의 화론은 자연경물을 종이에 맞게 그리기 위해 구도와 시점의 측면에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하였다.⁷³⁾ 이런 구도와 시점을 자세하게 논한 북송(北宋)의 곽희(郭熙, 11세기 초~11세기 말)⁷⁴⁾의 아들 곽사(郭思, 11세기 중~12세기 초)⁷⁵⁾가 정리해놓은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는 이동시점과 관련된 내용과 삼원론(三遠論)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먼저 이동시점이란 화가가 직접 거닐고 사색하면서 체험한 자연의 본질과 전체, 공간의 깊이와 넓이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방식(視方式)으로서, 눈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시점의 중심이 되어, 보이지 않은 경치가 있으면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시점을 이동시켜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시각이며, 전개형으로 열려 있는 시각이다.⁷⁶⁾ 이에 곽희의 화론서 임천고치에서 원근에 따른 이동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산은 가까이에서 보면 이와 같고, 몇 리 떨어져 보면 또 이와 같으며, 십 여리 떨어져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멀어 질수록 매번 다르니, 이른바 산의 모습은 걸음걸음마다 바뀐다는 것이다. 산은 정면에서 보면 이와 같고, 측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으며, 뒷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볼 때마다 매번 다르니, 이른바 산의 모습은 면마다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산이면서 수십, 수백의 산 모습을 겸하고 있으니, 가히 자세히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⁷⁷⁾

곽희는 ‘산의 모습이 걸음마다 바뀐다’는 것은 산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

73) 이성도 외,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p. 55.

74) 정확한 생졸년은 미상이나, 11세기 초에서 11세기 말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삼원법(三遠法)과 권운준(捲雲皴), 한림해조묘법(寒林蟹爪描法)이 표현된 산수화를 그렸으며, 그의 경험담에 기초해 『임천고치』가 전하는데 중국 산수화론의 종합적인 고전으로 평가된다.

75) 곽희의 아들로서 1117년에 『임천고치』를 저술하였다.

76) 고숙자 외,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 학지사, 2005, pp. 120~121.

77)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89.

뒤로 물러나면서 관찰 할 때 산이 달라지는 효과이다. 또한 ‘산을 먼마다 본다는 것’은 앞·뒤, 좌·우로 두루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몇 가지 관찰 방법을 운용한다면 수십, 수백의 산 모습을 얻을 수 있다.⁷⁸⁾ 이는 산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산수화에 나타난 산의 모습은 화가가 직접 거닐고 체험한 자연의 본질로서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시점의 중심이 되어 하나의 산수화 속에서는 다양한 면이 나타난 산과 같이 자연경물이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곽희는 “산수화가 보는 사람에게 지척(咫尺)으로도 천리의 아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공간의 투시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⁷⁹⁾라고 곽희는 투시법의 삼원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것을 일러 고원(高遠)이라 하고,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겨다보는 것을 일러 심원(深遠)하며,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로 보는 것을 일러 평원(平遠)이라 한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으며, 심원의 색은 무겁고 어두우며, 평원의 색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다. 고원의 세(勢)는 높이 솟아 있고, 심원의 뜻은 중첩되어 있으며, 평원의 뜻은 온화하고 아득하다.⁸⁰⁾

삼원의 투시법은 자연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각도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화가가 자연경물을 관찰하는 데 충분한 자유를 제공해 준다. 그럼으로써 화가가 명승경지를 유람하고 경험한 바가 많아지면, 그림을 그릴 때 고원, 심원, 평원의 투시방법에 의한 화면의 경영위치가 다양해지고 광활한 천지를 그려낼 수가 있다. 화가는 경우에 따라 한 폭의 그림에 삼원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형상을 배치할 수도 있다.⁸¹⁾ 이는 화가가 명승경지를 경험하면서 산수화에 표

78)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89.

79)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94.

80)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94.

81)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94 및 김혜숙, 위와 같은 논문, p. 116.

현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구도에 있어 자유를 준 것이다.

이동시점과 삼원법을 통해 산수화의 표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거닐고 체험한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의 본질로서 자연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산수화에 표현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면서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3) 표현기법을 활용한 산수화의 감상

산수화의 표현기법에는 채색 또는 수묵산수화, 준법, 수지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산수화의 표현에 있어 채색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먹만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감상의 첫 번째 과정일 것이다.

산수화는 먹을 이용한 수묵화가 많았지만, 산수화의 시작은 채색산수화였다. 즉 독립적 산수화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벽화의 한 배경으로 부분적으로 그려졌으며, 최초의 독립된 산수화인 전자건(展子虔, 533~603)⁸²⁾의 〈유춘도遊春圖〉도 모두 채색산수였다. 이러한 채색 산수화는 남북조시대와 수대(隋代)를 거치면서 당대(唐代)로 넘어와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산수화의 시작은 수묵산수가 아닌 채색산수였다. 이후 수묵산수화는 당 나라 중반 이후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송대(宋代)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채색산수화보다는 수묵산수화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전의 채색산수화는 전문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산수화였다. 하지만 문인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산수화에서 수묵산수화가 그려졌다.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발달한 필묵 매체와 문화 권력, 나아가 사상적인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화 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수묵화(水墨畫)는 물(水)과 먹(墨)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채색을 하지 않거나 혹은 얹게 더할 뿐이다. 수

82) 동백인(董佰人)과 함께 당화(唐畫)의 시조로 불린다. 도석(道釋), 인물, 고사(故事)를 잘 그렸고, 긴밀한 선묘와 색운(色暈)에 의한 인물 표현은 그 시대의 으뜸이었으며 정묘한 누각과 인마(人馬)를 배열한 산수화는 뛰어난 원근 표현으로 '지척천리(咫尺千里)'라고 평가되었다. 전승 작품 〈유춘도〉가 있다.

묵화의 경우 붓질(筆)의 선묘와 먹(墨)의 번짐으로 모든 자연물상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붓과 먹으로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수묵은 필묵의 기법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점에서 친근감과 충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인들에게는 먹을 이용한 새로운 수묵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중심철학이 지닌 미의식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노자』에서는 “오체가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하여 아득하고 거무스름한 빛깔의 현(玄)을 차원이 높은 세계로 간주하였고, 『논어』에서는 공자가 사치스러움보다는 검소한 것을 택하겠노라 언명하여 색채 감각에 영향을 주었다. 주요 사상의 심미적 지향성이 채색보다는 수묵의 세계와 잘 부합하였던 것이다. 수묵은 문인들에게 친숙한 매체였을 뿐 아니라, 정신성을 담보하는 기법으로 인정받았다. 수묵의 회화기법은 인물화나 화조화 혹은 각종 행사용 그림들보다는 유난히 산수화에서 많이 운용되고 발달되었다.⁸³⁾ 이러한 수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형호는 『필법기筆法記』⁸⁴⁾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남제 사혁의 육법에서 수류부채(隨類賦彩)는 예로부터 잘한 사람이 있었지만 수묵훈장(水墨暈章)같은 것은 당대(唐代)에 흥했다.

이는 채색보다 이후에 수묵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표현에서 채색으로 표현을 잘한 사람은 보이지만, 먹으로 표현을 잘한 사람은 당대에서야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채색보다 수묵이 표현하기에 있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수묵에서 먹빛의 다양함을 광희는 『임천고치(林泉高致)』⁸⁵⁾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83) 고연희, 위와 같은 책, pp. 42~47.

84) 오대(五代, 907~960) 형호의 회화이론서이며, ‘육요’(六要)와 ‘2병’(二病)론으로 중국 고대 산수화론에 골격을 세우고 있다.

85) 송대(宋代, 960~1279)의 회화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저작 중에서 동시대나 후대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광희(郭熙)의 경험담에 기초해 그의 아들 광사(郭思)가 저술한 중국 산수화론의 종합적인 고전으로 평가 된다.

먹을 운용할 때는 어느 때는 담묵⁸⁶⁾을 쓰고, 어느 때는 농묵을, 어느 때는 초묵을, 어느 때는 숙묵을, 어느 때는 퇴묵을, 어느 때는 부엌에서 쓸어낸 애묵을 사용하며, 어느 때는 청대를 취해 먹물에 섞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담묵을 사용할 때는 예닐곱 번을 덧칠해서 깊게 하면 먹색이 흠씬 배여 더 윤기가 있으며 메마르고 건조해 보이지 않는다. 농묵이나 초묵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물상의 한계를 표현하려고 하려고 위함이니, 농묵과 초묵이 아니면 소나무의 모란 곳이나 돌모서리 같은 데가 분명하게 나타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분명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청대를 섞은 얇은 먹물로 몇 번 거듭해서 덧칠을 해 놓으면 묵색이 분명해서 언제나 마치 안개나 이슬 가운데에서 튀어나오는 것같이 보인다..... 눈(雪)의 색은 담묵과 농묵을 사용하여 얇고 진한 것을 표현하되. 단지 먹 색깔의 농도가 한결같지 않게만 칠하면 되고, 안개(烟)의 빛깔은 비단 바탕의 본 빛깔을 그대로 두고 (안개자리만큼) 담수(淡水)로 언저리를 둘러 번지게 하되 필묵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한다. 바람이 불 때의 색은 황토나 애묵을 사용하면 되고, 흙 빛깔은 담묵과 애묵을 사용하면 된다. 돌은 청대를 먹에 섞어서 사용하되 깊고 얇음을 나타내야 하고, 폭포는 그림 그리는 비단의 원래 빛깔을 사용하되(즉 원래의 빛깔을 폭포만큼 칠하지 않고 놓아두되)단지 그 좌우 쪽을 초묵으로 그리면 된다.⁸⁷⁾

이처럼 수묵(水墨)이 주가 된 사상적 배경과 먹의 중요성 그리고 먹빛의 다양함을 이해하면서 자연이 표현된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수묵산수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후 산을 이룬 바위를 표현한 준법, 나무를 표현한 수지법에 대한 감상이 있을 수 있다.

준법이란 ‘살가죽 터져 주름질 준(皴)’, ‘방법 법(法)’자를 써서 ‘땅 표면의 요철을 표현하는 법칙’이라는 뜻이다. 즉 자연의 대상인 주름을 파악하여 표현하

86) 담묵(淡墨)은 얇은 먹빛의 먹이다. 농묵(濃墨)은 짙은 먹빛의 먹이다. 초묵(蕉墨)은 끈적끈적 할 정도로 간 묵즙이다. 숙묵(宿墨)은 갈아둔 먹물이 하룻밤 지난 먹이다. 퇴묵(退墨)은 숙묵에 가라앉은 먹찌기로 대략 숙묵과 같으나 광채 즉 윤기가 없다. 애묵(埃墨)은 부엌의 천장이나 솔에 앉은 그을음을 물 또는 아교 물에 갠 것이다. 청대(靑黛)는 쪽을 물에 넣어 하루 재워 석회를 넣은 후 물에 뜬 고운가루를 건져 읍지에 건조한 것이다.

87) 김기주 역,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p. 170~171.

는 법칙이다. 준법은 땅 표면의 질감과 명암, 바위나 자연의 양감, 입체감, 산세(山勢)등의 유형화(類型化)한 자국(線)이다.

자연을 표현한 산수화에서 이러한 준법이 생긴 첫째 이유는 수묵화가 선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즉 산과 바위를 표현해야 하므로 독특한 선, 다시 말해서 거친 선, 부드러운 선, 곧은 선, 꺾은 선, 눌러 내린 선, 비튼 선 등 다양한 선에 의해 감정을 담아 그림에 표현할 수 있다 보니 독특한 준법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먹이라는 한 가지 재료를 써서, 한 가지 색만으로 물체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준법이 필요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화한 선으로써 특징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준법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형사(形似)가 아니라 사의(寫意)를 중시하는 동양회화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그림을 그릴 때 실물과 닮게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물체가 가진 느낌이나 뜻, 또는 근본 이치를 표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산세나 바위, 토양을 나타낼 때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사물이 가지는 느낌이나 특징을 개념화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자연히 선 하나를 그어도 물체의 의미가 함축된 뜻이 있는 형태를 찾게 되고, 이것이 유형화하여 특징 있는 준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가파른 절벽과 험한 산이 많은 고장에서는 도끼나 자귀로 찍어 내린 듯한 모습의 부벽준법(斧劈皴法)이 형성되었으며, 흙이나 낮은 언덕으로 된 산자락이 있는 지방에서는 삼겹질을 찢어 펴 놓은 듯한 피마준법(彼麻皴法)이 애용되어 왔다. 또 건조한 화북지방의 황토암석(黃土巖石)을 표현할 때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수한 점을 찍어 표현하는 우점준(雨點皴)으로 나타냈다.⁸⁸⁾ 산수화의 수많은 준법은 바로 화가가 여러 가지 산과 돌의 재질이나 겉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화법상 추출해내고 정제시킨 것이다.⁸⁹⁾ 이러한 준법이 나타난 배경과 지역에 따라 또한 산과 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준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수지법은 나무의 종류나 그리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동기창(董其昌, 155

88) 조용진 외,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2002, pp. 135~142.

89) 강관식 역, 위와 같은 책, p. 289.

5~1636)⁹⁰⁾은 『화안畫眼』에서 나무를 그릴 때의 유의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나무(를 그릴 때)는 본디 붓을 돌려(변화를 주어)야 하고, 가지는 번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지 끝은 수습되어야 하고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나무는 꼭대기는(사방으로) 퍼져나가야 하고 오그라들어서는 안 된다.⁹¹⁾

이상과 같이 화론에서의 산수화는 그냥 보여 지는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 또는 화가의 기운이 담긴 정신성을 바탕으로 자연을 배치하는 것부터 관찰하는 방법, 즉 이동시점과 삼원론을 통해 구도에 자유를 주어 자연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수묵이 나타난 사상적 배경 및 먹빛의 다양함, 그 외에도 준법, 수지법등 다방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산수화의 특징인 표현기법, 투시법, 기운의 정신적인 가치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감상하게 되면, 산수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상 사례들 또한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해하며 내면화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방법에 새로운 감상방법으로 비평적 탐구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조사와 연구의 맥락적 정보를 토대로 토론과 탐구과정으로써 경험이 중심이 되는 감상이 있을 수 있다.

90) 강남산수가 문인산수화의 정통 주맥(主脈)임을 주장하고, 역대 고전에 담긴 이상적 양식을 창조적으로 전승(傳習)하는 이론과 실천을 교의적(教義的)으로 보여주어 예원(藝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저서로 『용대집(容臺集)』, 『화선수필(畫禪室隨筆)』 등이 있다.

91) 변영섭 역 외, 위와 같은 책, p. 48.

2. 게히건(Geahigan)식 감상 계획

1) 기존 감상 교육과의 차별화 전략

미술 감상 교육에서 비평의 중요성은 최근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감상영역의 변화된 내용으로써 미술 비평에 대하여 아래 <표 5> 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5>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전 (2009), 후 (2011, 08)

미술교육과정 (감상) 변경 전		미술 교육과정 (감상) 변경 후	
미술 작품	미술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한다.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미술 문화	미술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미술 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위의 표와 같이 감상교육에 있어 미술비평학습은 새로운 모색 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에 제시된 감상영역의 전통 산수화와 관련된 내용은 외형적이며 표면적인 설명으로써 이해와 탐구측면에서의 감상 활동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관이 반영된 산수화, 화론을 활용한 산수화 감상의 기존 사례에 있어서도 이해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감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비평적 탐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먼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유발하고 스스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하여 탐구하고 사고하는 감상 학습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평적 탐구학습은 기존 감상 교육과의 다른 새

로운 감상학습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통 산수화 감상에 비평적 탐구이론을 활용하여 기존 감상교육과의 차별화 방안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논할 수 있다. 첫째, 효과적인 수업 안을 적용 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과정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적용이 용이한 교수-학습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반성적, 합리적, 미적 사고 등을 촉진 할 수 있게 하는 탐구를 유도하는 발문일 것이다.

(1) 교사의 역할

비평적 탐구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인 탐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교육적으로 자극하고 개발시키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사는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주의 깊게 들어주며, 작품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욱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비평 활동이 되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초기 반응이나 토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학생들의 눈으로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 비평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교사는 비평적인 행동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③ 교사는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기술적이며 분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된 질문을 해야 한다. 대화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발문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비평가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작품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하

는 대화의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교사는 비평가로서의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⑥ 교사는 비평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해석이나 판단에 대하여 포용적일 수 있는 교실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⑦ 교사는 미술관련 지식이 풍부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교사의 도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할 수 있도록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 정보가 시대에 뒤떨어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⑧ 학생들의 반응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의 관심 분야 쪽으로만 기울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경험이나 흥미, 관심사를 잘 파악하고 절충하여 그에 부합된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위해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비평적 추론 활동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이루어진다. 불안하지 않고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⁹²⁾

(2) 교수-학습 체계

게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은 탐구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 체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과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① 감상 작품 직면 및 문제 인식 상황(탐구의 선행조건)

탐구의 시작인 작품의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때 학생은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작품이 아닐 경우 이 작품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아직 학생들은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이 제한되고, 내적 충동과 불안정함이 생긴 상황이 바로 문제 상황이며 탐구의 선행조건이 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92) 양재진, 위와 같은 논문, pp. 68~69.

의 환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갈등 제시는 막연한 문제 상황보다는 학생들의 주변 삶과 관련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탐구의 지속성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⁹³⁾

② 문제의 명료화

문제의 명료화는 작품의 관찰과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문제 상황의 불안정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편적인 의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토론의 시작에 교사는 대답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비지시적인 질문,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 작품에서 암시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하는 평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 교사는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며, 잘못된 질문은 토론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질문은 개별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개인적 반응들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들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교사는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조력자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을 마칠 때는 학생들이 익히게 된 것을 숙고해보도록 하여 더 깊은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을 다 알거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기초로 연구 과제를 통한 더 깊은 탐구가 일어나게 된다.

③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 모색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 모색은 작품에 대한 여러 가설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는 학생들이 작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작품의 의미와 가치 판단을 위한 여러 가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예술작품을 어려워하

93) 김지원, 「G, Geahigan의 비평적 탐구 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 28 및 이재영, 위와 같은 논문, p. 88.

고, 관련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오직 관찰이라고 생각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비판적 반성을 촉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가설의 결과 추론

가설의 결과 추론은 여러 가설들을 확인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 학생들은 미적 개념의 습득과 학생 연구 활동, 즉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의 탐색,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적 지식과 화가에 대한 자료 수집, 미적 개념의 적용, 다른 작품과의 비교, 도서관 자료 검색, 그룹 연구, 전문자료 읽기 등을 통해 가설을 추론한다.

⑤ 가설 검증

가설검증은 가설들을 객관적, 맥락적 자료로서 검증하는 일인데, 이를 위한 미적 개념의 습득과 연구 활동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총 결과물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즉 이전의 과정이 가치판단을 위한 추리 작업이라면 이 과정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판단을 내리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처음 작품에 가졌던 초기 반응의 변화를 확인함은 물론 작품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가치판단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작품의 특징을 미학적인 용어로 소개하고, 습득한 개념을 학습한 작품에 적용하도록 하며, 결론과 습득한 지식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발표와 토론으로 서로의 생각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토론이나 에세이 등을 써보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탐구 과정, 즉 학생이 문제 인식 상황에서 작품을 대하고 분명히 인식해 가면서 다양한 가치의 설정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학생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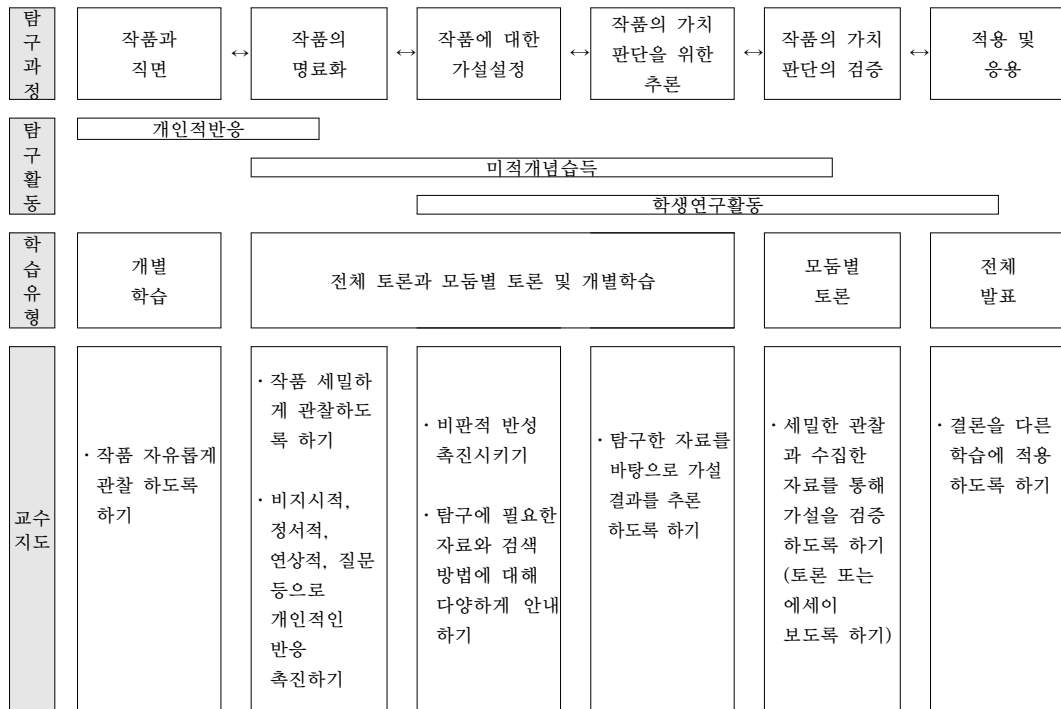
⑥ 결론의 적용

결론의 적용은 탐구의 결론을 다른 가치 결정에 적용 시켜 보는 일인데, 학생이 내린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결론은 실생활에 미적 가치를 가진 대상물에 응용되고 적용된다. 결국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때로는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사고하는 능력과 생활 태도를 기르게 되는 것이다.⁹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은 학생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초기 반응을 중시하고 탐구를 시작하여 능동적인 학습 활동으로서, 토론을 중점적으로 하여 학생들의 공동 노력으로 결론을 얻도록 한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토론 이외에도 학생들의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평 활동지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한다. 그리고 미적 개념의 습득과 학생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 판단을 확실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 내 영역 또는 이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 활동을 계획한다. 이에 게히건의 탐구의 과정과 활동, 학습유형, 교수-학습 체계를 아래 <표 6> 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6> 비평적 탐구 이론의 교수-학습 체계



94) 김지원, 위와 같은 논문, pp. 28~40

표에서 제시된 마지막 단계인 검증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창작 활동에 적용하거나 작품에 대한 신문기사 작성하기, 전시회 기획하기 등의 활동으로 연계시켜 심화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3) 탐구를 유도하는 발문

비평적 탐구를 통한 감상학습에서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적절한 발문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문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교사의 발문은 의미 있는 발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발문의 관점에 명확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발문을 던진다면 사고를 촉진하기보다 사고를 저해하고 원활한 교수-학습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② 발문은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학습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발문은 피해야 한다. 또한 발문에 담긴 어휘의 수와 수준, 배열순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한 번의 발문 속에 너무 많은 질문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

③ 발문은 반성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있는 발문보다는 사고하고 추론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렴적인 발문이 아니라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확산적인 발문이어야 한다.

④ 발문은 학습자의 미적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 없이 지나치게 수준이 높거나 또 너무 쉬운 발문은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해 학습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

⑤ 발문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단순한 기억을 요구하는 발문은 짧은 반응 시간을, 반성적 사고를 요하는 발문은 충분한 시간을 준다.⁹⁵⁾

발문은 단편적인 지식이해 감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사만 발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⁹⁶⁾ 따라서 교사는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기보다는 적절한 발문으로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비평적 탐구학습의 활동을 위한 발문의 관점은 아래 <표 7> 과 같이 기호학적 측면, 미학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표 7> 발문의 관점⁹⁷⁾

기호학적 측면	표현형식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내용	작품 주제
미학적 측면	직 관	미적 직관
	가치판단	미적 가치 판단
사회·문화적 측면	작품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①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작품을 읽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호학적 측면에서 발문은 표현형식과 관련된 조형요소와 원리를, 표현 내용과 관련된 작품 주제에 관한 발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지만, 조형요소와 원리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을 발문 시에 고려해야 한다.

○조형요소와 원리에 관련된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나요?
- 형태들은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 시선을 끄는 색은 무엇인가요?
- 굵은 선, 가는 선, 날카로운 선, 부드러운 선은 어디에 있나요?
- 질감의 처리가 실제적인가요, 표현적인가요?
- 그림 속의 공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95) 류재만, 「미술 감상·비평 학습에서 발문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8권 1호, 2004, p. 205.

96) 류재만, 위와 같은 논문, p. 206.

97) 류재만, 위와 같은 논문, p. 206.

⊙ 표현 내용인 작품 주제와 관련된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배경처리는 주제와 잘 어울리나요?
- 전체적인 색채는 주제 표현에 어울리나요?
- 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제작 했을까요?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 보세요.

② 미학적 측면에서는 미적 직관과 관련된 첫인상과 가치 판단과 관련된 미적 가치 판단에 관한 발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미적 직관은 감상자가 작품과 대면하면서 최초의 반응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며, 미적 가치 판단은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학생이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 즉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 미적 직관과 관련된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 작품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해보세요.
- 이 작품에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나요?
-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게 하나요?
- 이 작품에서 특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작품에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 미적 가치 판단과 관련된 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 주제 표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작품이 감동을 주나요?
- 작품을 갖고 싶은가요?
-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이 작품을 다시 제작한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나요?

③ 사회·문화적 측면

예술작품은 하나의 기호체계로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호들은 주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다른 기호들의 체계와 결합될 때 작품의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지시내용 그리고 내연적 의미(connotative)가 변환된다. 즉 기호체계가 가진 의미는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발문은 작품의 배경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발문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발문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그림은 어느 시대 작품인가요?
- 이 그림의 원제목은 무엇일까요?
-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 이 작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 이와 같은 작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작품의 종류나 사조와 관련)
- 이 시대에 왜 이런 풍의 그림이 유행했을까요?⁹⁸⁾

기존 전통 산수화 감상 교육과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을 활용하여 학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체계, 그리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적 호기심, 사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탐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발문 등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감상교육은 획일적인 절차에 의한 비평학습, 교과서에 제시된 외형적이며 표면적인 내용 또는 작품에 관련된 이해가 중요시 되었다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활동은 이러한 차별화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스럽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상 학습으로 기존 감상 교육과의 차별성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평적 탐구학습은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자발적인 감정이입, 객관적인 연구 활동과 자유로운 사고의 조합 속에 해석의 타당성을 갖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을 것이다.

98) 류재만, 위와 같은 논문, pp. 206~210.

2) 현대적 안목으로 바라 본 전통 산수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불리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국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각 지역과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융화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획일화된 문화가 아닌 좀 더 개방된 문화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다양성을 통해 문화는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화되고 세계화될수록 자신의 정체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전통의 고유성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문화의 필요성이 커진다.⁹⁹⁾ 이에 교육은 정체성의 함양과 독자적인 문화 창조를 위한 전통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호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세계로 향한 열린 문화적 의식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¹⁰⁰⁾ 즉 전통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정체성의 함양과 세계 문화의 교류 속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통과 관련된 전통미술인 산수화에 대해 안휘준은 ‘동양회화의 발전 과정을 가장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양화에서 산수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곧 회화의 주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한국 산수화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⁰¹⁾ 다시 말해서 한국 회화의 흐름 속에서 산수화를 파악하는 것은 주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수화는 동양 특유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다른 회화 장르보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적 생각들을 보다 다양하게 담아왔으며 화가의 창의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들의 미의식을 나타내 온 그림이라고 정의되어 진다. 즉 산수화는 옛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창의적 표현의 예술인 것이다.¹⁰²⁾ 이런 예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99) 이성도 외, 『전통미술문화 교육』, 미진사, 2005, pp. 12~17.

100) 이성도 외, 위와 같은 책, p. 348 참조.

101) 안휘준, 『한국 그림의 전통』, 사회평론, 2012, p. 122.

102) 안해련,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전통회화 감상지도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 67~68.

학교 현장에서의 전통 산수화 감상교육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서의 구성 또한 외형적이며 표면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전통 산수화를 보다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전통 산수화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연을 위대하게 여긴 선조들의 사상, 즉 자연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자연과 동화되며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따르고자 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통해 그 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옛사람들의 자연관과 인생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비평적 탐구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전통 산수화에 대하여 어려운 것, 지루한 것이 아닌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험으로 우리 민족 특유의 가치관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에게 전통 산수화의 가치를 주제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미술문화에 자신감이 생길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체성의 함양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계획의 전통 산수화 감상 계획은 다음 <표 8> 과 같다.

<표 8> 계히건식의 전통 산수화 감상 계획

탐구 과정	내용 및 활동	유의점
작품과 직면	·작품과의 첫 직면 (작품의 첫인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비지시적, 정서적, 연상적인 질문 등으로 개인적인 반응 촉진
작품의 명료화	·작품을 세밀하게 관찰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고 미적개념 습득) ·개별 탐구 활동지 작성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자세하게 관찰 후 작성)	
작품에 대한 가설 설정	·작품의 의미 또는 의문점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 ·모둠별로 작품의 의문점과 가설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계획 방향 설정	·탐구에 필요한 자료와 검색 방법 안내
가치 판단을 위한 추론	·모둠별로 의문점과 가설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와 탐구한 내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가설 추론 ·발표한 자료와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에세이 작성	·조사한 자료에 관한 개념이나 기법에 관한 부연 설명은 하되 판단과 관련된 해설은 유보
작품의 가치 판단의 검증	·탐구한 자료와 토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검증	· 비평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적용 및 응용	·신문기사 작성법 이해 ·모둠별로 신문기사 작성 ·모둠별로 작성한 신문기사 발표	· 감상 후 신문기사 작성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에 결론 적용

적용 및 응용과정에서는 가치가 판단된 결론에 대해 심화 학습으로 연계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술기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에 관한 신문기사 작성을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발표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써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게히건(Geahigan)의 감상지도

1.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이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는 개념 및 기술 지도 그리고 연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과정에서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감상 지도에 앞서 조력자인 교사는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품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이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탐구과정의 조언과 개념의 부연설명으로서 조력자의 역할이며, 판단과 관련된 해설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예술작품에는 당시의 문화가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작품에는 그 당시의 사상과 사회·문화전반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미의식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창작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예술작품이 창작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예술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회화사를 대표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를 중심으로 그 당시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이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에 있어 겉모습만을 외형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창작된 배경에 숨어있는 사상이나 이론 등의 내면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감상의 저변을 확대 시켜한다. 따라서 교사는 조선 시대 초기인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조선 시대 후기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품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

(1) 몽유도원도가 창작된 조선 초기의 사상과 정치·사회·문화·경제

조선왕조는 불교를 이념 기반으로 했던 고려와 달리 신유학인 성리학(性理學)을 국시(國是)로 천명했다.¹⁰³⁾ 이 주자성리학은 고려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처음 받아들이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하였다. 이후 많은 신진 주자성리학도들이 길러지게 되는데 이들이 주축이 되어 고려 왕조를 뒤엎고 그들의 이상에 맞는 새 나라가 조선 왕조이다. 조선 개국의 주역들은 대부분 성리학도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학문 경향은 시문서화(時文書畵)¹⁰⁴⁾ 등 예술을 필수 덕목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¹⁰⁵⁾으로 치세하려고 했다.¹⁰⁶⁾

조선 시대 초기 성리학¹⁰⁷⁾은 국가를 경영하는 이념의 중심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고려 말기 이래의 경향으로 조맹부(趙孟頫, 1254~1322)¹⁰⁸⁾의 송설체(松雪體)가 유형하였으며, 나아가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송설체를 더 수려하고 곱고 아름답게 구사하여 명(明)에서조차 제일로 꼽을 정도였다.¹⁰⁹⁾ 회화에서는 북송(北宋)과 남송(南宋)회화풍이 동시에 유행하였으며, 화원(畵員)인 현동자(玄洞子) 안견(安堅, 1418~1452)¹¹⁰⁾을

103)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사상으로 조선시대와 소통하다』, 민속원, 2012, p. 94.

104) 시가, 산문, 글씨,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05)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106) 안휘준, 『한국그림의 전통』, 사회평론, 2012, p. 112.

107) 안휘준, 위와 같은 책, p. 112에서는 성리학의 기본 이론은 우주의 생성 변화를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리(理)와 현상적이고 가변적인 기(氣)로써 설명하는 이기론(理氣論)을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108) 중국 원대의 관료, 서화가이며, 송 태조 넷째 아들 진왕 덕방의 자손으로 태조의 11대 손자이다. 서에 있어서는 전서·문예·진·행·초서 등 각체에 능통했고 특히 왕희지로의 복귀에 힘써서 그 서풍은 이후의 시대 및 한국,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서예 작품에는 『난청침십삼발』, 『한읍암전』, 『여중봉명본척적』 등이 있다. 화에 있어서는 당, 북송화풍을 모범으로 하는 북고주의를 따라 이사훈, 이소도의 청록산수, 동원, 거연의 소위 동거파 화풍 및 이곽파 양식을 받아들여 원대 산수화의 전형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109)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과 문화』, 역사와 문화, 1998, p. 98.

110) 조선 시대 초기의 화가이며, 세종~문종조에 활약하였다. 궁중 화생(畵生)으로서 특히 세종의 셋째 아들안평대군의 은총을 받아, 대군의 중국화 수집을 통해 원대(元代)와 이곽파(李郭派) 화풍을 파악

중심으로 북송원체화풍 계통이 화원화풍으로 자리를 굳히고, 집현전 학사 출신인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을 중심으로 남송원체화풍 계통이 사대부화풍으로 정착하게 된다.¹¹¹⁾ 문학에서는 한글 창제 후 세종은 그 시행·보급에 힘써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등을 비롯해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었으며, 국문학 작품의 효시인 용비어천가는 악장(樂章)이라는 독특한 시형(時形)으로 발전하였다.¹¹²⁾ 그 외에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도정치(王道政治)¹¹³⁾를 해야 하고 정전제(井田制)¹¹⁴⁾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¹¹⁵⁾ 또한 중국농법과 우리 농법을 합일시켜 농사직설(農事直設)이 편찬되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중농정책은 농서의 출간뿐 아니라 천문·역법·측량·산학 등의 발달을 가져왔다.¹¹⁶⁾ 이로써 조선 초기에는 주자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맞게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미감까지도 결정짓는 하나로서 이상사회를 이루어갔다.

(2) 인왕제색도가 창작된 조선 후기 사상과 정치·사회·문화·경제

조선 시대 후기에는 주자성리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사대부들은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대표되는 인물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¹¹⁷⁾을 주장하게 된다. 그 다음 세대로 퇴계 학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는 기발이승설(氣發理乘設)¹¹⁸⁾을 주장하여, 만물의 성정이 기(氣)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기

했다. 대표작으로 『몽유도원도』, 『적벽도』 등이 현존한다.

111)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위와 같은 책 p. 95.

112)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 177.

113) 맹자의 정치사상이며, 무력이나 강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覇道政治)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도덕적 교화를 통해서 순리대로 정치하는 것을 뜻한다.

114)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 163에서는 풍년과 흉년일 때를 참작하는 전분(田分) 6등·연분(年分) 9등이라는 조선에 맞게 주자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공법(貢法)으로 변화하여 시행하였다.

115)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 162.

116)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p. 218~219.

117) 만물생성의 원리인 이(理)와 원인인 기(氣)가 호발(互發)한다 하여 이 자체도 가변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이다.

118) 이(理)기(氣)의 상호작용이라 할지라도 기(氣)만이 작동해도 이(理)는 기에 편승할 뿐이라는 이론이다.

일원론(二氣一元論)으로 심화 시켜놓는다.¹¹⁹⁾ 이는 주자가 의도 했으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과였다. 이로써 성리학은 중국 외래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 조선 고유사상으로 발전적인 토착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주장 성리학이 아니라 율곡성리학(栗谷性理學), 즉 조선성리학이 사상이 중심이 된 것이다.¹²⁰⁾

이때 국제 정세는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다. 조선에서는 사대(事大)의 대상이었던 명나라가 멸망하고 오랑캐로 여기던 만주족의 청나라에게 사대의 예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청에 대한 사대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성리학적 명분론과 의리론에 입각하여 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중원을 오랑캐가 차지하였으니, 이제 중화문화의 정통성을 조선이 지켜야 한다는 조선중화의식이 진전되어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싹터왔던 조선고유색이 활기를 띠게 된다.¹²¹⁾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율곡계의 문인들은 우리 산천을 소재로 하는 진경시(眞景時)를 읊게 되었다. 글씨는 석봉 한호(石峯 韓濩, 1543~1605)가 고유색 짙은 단정한 해서체(楷書體)를 이루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서 그림도 진경 화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김창흡(金昌翕, 1653년~1722)이 자신의 진경시 기틀을 마련하고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이 이를 완성했으며,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이 한글소설을 써냈고,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¹²²⁾은 진경산수화를 확립했다.¹²³⁾ 그 외에 율곡의 계통을 잇는 지식인들은 조선성리학의 이해를 진전시켜 이(理)의 보편성을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조선성리학을 계승하여 현실을 개혁하며 이는 산림

119) 안휘준, 위와 같은 책 p. 120 및 최완수 외, 『진경시대 (1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8, p. 15.

120) 안휘준, 위와 같은 책 p. 121.

121)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위와 같은 책 p. 104.

122) 조선 후기의 화가이며, 처음에는 중국 남화(南畵)에서 출발하였으나 30세를 전후하여 조선 산수화(山水畵)의 독자적 특징을 살린 사생(寫生)의 진경화(眞景畵)로 전환하였으며 여행을 즐겨 전국의 명승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 강한 농담(濃淡)의 대조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치를 개척하였다.

123) 안휘준, 위와 같은 책, 2012, p. 121.

(山林)이 경연(經筵) 정치를 주도하면서 왕도정치(王道政治)로서 정전제(井田制)¹²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동법(大同法)·균역법(均役法)의 조세균동론을 통해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추구해 갔다.¹²⁵⁾ 또한 산림경제(山林經濟),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가 나오면서 농학이 집대성되었고, 구황작물의 재배법에 대한 저서가 나오게 되며, 시비법¹²⁶⁾이 발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앙법¹²⁷⁾과 밭농사에 대한 윤작이 가능하였다.¹²⁸⁾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수공업·광업 등 모든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산품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였다.¹²⁹⁾ 더불어 조선, 청나라, 일본 비단 중계무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면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부강에 힘입어 좋은 그림이나 글씨, 골동품을 좋아하는 수요자가 늘어났으며, 이전 시기와 달리 회화 작품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했다.¹³⁰⁾ 이로써 조선 시대 후기에는 조선 성리학과 조선중화의식이 바탕이 되어 고유 색채를 드러내며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수준 높게 발전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예술작품의 감상에 있어 단순히 미감을 향유하는 것에 나아가 사회·문화를 이해하도록 조력한다면 학생들은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될 것이다.

2)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특징

(1) 몽유도원도의 특징

조선 시대 초기의 1447년 4월 23일에 완성된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부탁

124)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 78 에서는 전세(田稅)·공물(貢物)·요역(徭役)·군역(軍役) 모두를 합해서 10분의 1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p. 52~53 및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위와 같은 책 p. 78.

126) 토양이나 작물에 비료성분을 공급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농작법이다.

127) 벼농사에서, 못자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모를 본 논으로 옮겨 심는 재배방법을 말한다.

128)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p. 220~221.

129) 최완수 외, 위와 같은 책, pp. 211~215.

130) 지두환, 위와 같은 책, p. 74 및 박차지연,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2005, p. 157.

을 받고 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꿈속에서 거닌 도원을 묘사한 작품으로써 안건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작이며 15세기 조선회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 유산이다.¹³¹⁾

몽유도원도는 담황색 색조를 바탕으로 하여 농묵, 담묵의 섬세하고 현란한 필치로 기암절벽과 그 속의 도원을 분홍금빛의 복숭아나무 숲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그림의 왼편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오른편 상단부로 대각선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차로 웅장감을 더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현실세계와 환상적인 세계가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왼쪽의 현실세계는 토산인 야산으로 표현된 반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원의 세계는 기이한 형태의 바위산들로 묘사되어 있어서 꿈속의 환상적인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오른쪽 부분의 도원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부감법(俯瞰法)¹³²⁾의 구성 방식으로 도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몽유도원도는 잘 구성된 구도, 공간의 교묘한 처리, 평원(平遠)과 고원(高遠)의 두드러진 대조, 사선운동(斜線運動)의 활용에 점증되는 웅장감, 그리고 환상세계의 성공적인 구현 등에는 안건 특유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격조가 잘 발현되어 있다.¹³³⁾ 또한, 안건의 그림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제발(題跋)과 당대의 문인들을 포함한 21명의 명사들이 직접 쓴 찬시(贊詩)와 찬문(贊文)이 어우러져 있다.

(2) 인왕제색도의 특징

조선 시대 후기의 1751년에 완성된 인왕제색도는 겸재 정선의 나이 76세에 그려진 작품으로 인곡정사 뒷산의 준수한 바위 봉우리가 비안개 걷히며 환히

131) 고연희, 위와 같은 책, p. 97.

132) 부감법(俯瞰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시에 의한 투시법으로 즉 부감은 '높은 곳에서 고개를 구부리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는 뜻이다.

133)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4, p. 224.

드러나는 모습을 장쾌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인왕제색도는 화면을 압도하는 인왕산 바위를 포착하여 실경인상을 작품화한 것으로 정선의 재능이 잘 드러난다. 바위봉우리의 미끄러운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몇 번이고 붓을 가하여 그 붓 자국이 더욱 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주변 산자락의 바위와 소나무, 태점이 천연스러운 붓놀림으로 묘사되어 화면 속에서 박진감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¹³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진경산수화가 말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테면 그의 집 근처의 인왕산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독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진경산수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강렬한 양감 혹은 괴량감(塊量感)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인데 이를 위해 정선은 암산, 암벽을 그리는 일종의 적묵법(積墨法)¹³⁵⁾을 사용하고 있다. 비에 젖은 암벽의 중량감을 살린 적묵의 묘사는 정선의 말년 기지와 필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묵색을 기조로 하고 나머지 암면은 덧칠로 처리할 뿐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배포한 수림도 주봉과 같이 적묵으로 강조하고 있다. 화면은 중묵으로 묘사하되 간간이, 그리고 왼쪽 아래로 운문과 산 등을 희게 남겨 흑백의 대조로 인왕산을 한층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¹³⁶⁾ 이상과 같이 교사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산수를 소재로 한 안건의 공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감상학습에 있어 탐구과정을 조력할 수 있다.

134) 진경산수(眞景山水畵)는 우리나라 실재하는 경관을 남종화(南宗畵) 양식에 바탕을 두고 정선(鄭敼) 특유의 화풍을 가미하여 그린 그림이다.

135) 적묵법(積墨法)은 먼저 담묵을 칠하고 그 먹이 마르면 좀 더 짙은 먹을 입히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깊은 양감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136) 안해련,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전통회화 감상지도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 72~73.

2.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감상지도

계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를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대상은 이상(理想)적 산수화로 대표되는 몽유도원도와 경험(經驗)적 산수화로 대표되는 인왕제색도의 교수-학습 감상지도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1) 단원명 및 대상

- 대단원: 감상
- 중단원: 조선시대 산수화
- 소단원: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이해
- 대상: 중학교 2학년

(2) 단원 선정의 이유

물질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성과 정신성을 존중하는 산수화의 감상은 학생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예술정신, 즉 자연과 더불어 마음을 수양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전통 산수화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회화의 주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적 가치 또한 크다. 따라서 한국 회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통해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원근법의 특징과 안평대군을 포함한 당대 문인들의 시와 글씨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 작품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음을 인식시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조선시대 후기의 진경산수화로써 우리 산천의 실제 경치를 경험하여 묘사한 진경산수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두 작품의 감상은 이상적 산수와 경험적 산수의 비교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화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산수의 의미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보고, 해석을 통해서 전통 산수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3) 단원 학습 목표

- 산수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설명할 수 있다.
- 두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비평적 탐구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 및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 비평적 탐구과정을 통해 작품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다
-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4) 단원 학습 자료

- 교사: PPT, (참고 작품, 신문기사 예시), 이해 관련 유인물, 관련 활동지,
- 학생: 학습자료, 필기도구

(5)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다양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존중하고 기억한다.
- 토론활동을 위해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간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도록 돕는다.
- 작품의 신문기사 작성을 위해 실제 예술분야의 신문기사 예시를 통한 이해를 돕는다.

(6) <표 9> 단원 학습 계획안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준비 자료
1차시	미술 감상 (비평적 탐구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적 탐구란 무엇인가와 그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감상한다. · 개별 탐구 활동지를 작성하여 작품을 명료화한다. · 모둠별 토론을 통해 한 작품을 선택하여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방향을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 수업이해 관련 유인물1, 개별 탐구 활동지, 가설 질문지1, 2
2차시	미술 감상 (비평적 탐구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탐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가설질문의 내용을 추론한다. ·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에세이를 작성한다. · 토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 · 신문기사의 개념 및 작성법에 대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 수업 관련 유인물2, 작품에세이 작성 지
3차시	미술 감상 (결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작품에 대한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 · 모둠별로 작성한 신문 기사 내용을 외국인에게 발표한다. (학교 원어민 선생님 등 초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 작성 지

(7) <표 10>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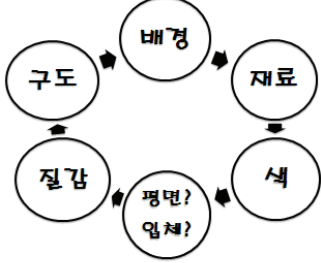
대단원	감상	중단원	조선시대 산수화	소단원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이해	차시	1/3
학 습 주 제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의미를 찾아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학 습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작품 감상 후 개인적인 느낌을 말할 수 있다. 2.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작품의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방향을 계획할 수 있다. 						
합 습 자 료	교사					학생	
	PPT, 참고작품(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수업 이해 관련 유인물1, 개별 탐구 활동지, 모둠별 가설 질문지1, 2					학습자료,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습 요소	탐구 과정	교수-학습 내용		학습 유형	유의점		
도입 (5분)	수업준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출석 점검 수업 분위기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태도 준비 	전체 학습	- 집중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		
	전시학습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학습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학습 내용 답변 				
	학습내용,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주제 소개 학습 목표 제시 비평적 탐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따라 읽기 비평적 탐구의 이해 				
전개 (35분)	동기 유발 (3분)	작품과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관련 유인물 1 배부와 함께 산수화 관련 (이이남 작가의 산수화 영상물) 자료를 보여준 준다. 산수화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인물 보면서 이해하며 답변한다. 우와 신기해요. 산수화가 이렇게 만들어 지기도 하는구나! 산수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개별 학습	- 산수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인정하기		
	주제 제시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유도원도 제시 작품에 대한 첫 인상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유도한다. -이 작품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게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유도원도 직면 작품의 첫인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개별 학습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관찰하도록 하기
	감상 (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형식적 특징 (조형 요소와 원리, 작품의 특성, 재료와 기법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을 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는 어떤가요? -작품의 배경은 어디라고 생각되나요? -작품에 어떤 재료를 사용 했나요? -작품에 어떤 색을 많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사과의 과정을 통해 작품을 명료하게 인식한다. 개인적인 느낌과 형식적 특성을 개별 탐구활동지에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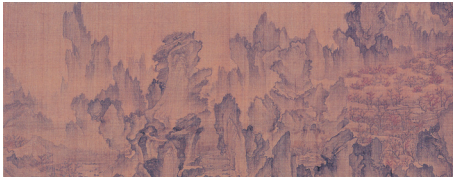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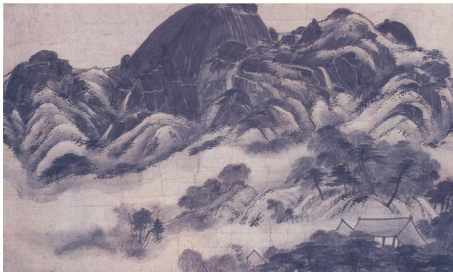
		<p>사용 했나요?</p> <p>-작품에서 어떤 부분에 시선이 가나요?</p> <p>-작품은 평면적인가요? 입체적인가요?</p> <p>-작품의 질감은 어떤가요?</p> <p>• 작품의 의미 또는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p> <p>-작가는 이런 형식을 사용하여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p> <p>• 개별 탐구활동지 배부 후 작품의 첫 느낌과 형식적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한다.</p>			
주제 제시 (3분)	작품과 직면	<p>• 인왕제색도 제시</p> <p>• 작품에 대한 첫인상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유도한다.</p> <p>-이 작품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p> <p>-이 작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게 하나요?</p>	<p>• 인왕제색도 직면</p> <p>• 작품의 첫인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p>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관찰하도록 하기
감상 (8분)	작품의 명료화	<p>• 작품의 형식적 특징 (조형 요소, 조형원리, 작품의 특성, 재료와 기법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을 한다.</p> <p>-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는 어떤 가요?</p> <p>-작품의 배경은 어디라고 생각되나요?</p> <p>-작품에 어떤 재료를 사용 했나요?</p> <p>-작품에 어떤 색을 많이 사용 했나요?</p> <p>-작품에서 어떤 부분에 시선이 가나요?</p> <p>-작품은 평면적인가요? 입체적인가요?</p>	<p>•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사과의 과정을 통해 작품을 명료하게 인식한다.</p> <p>• 개인적인 느낌과 형식적 특성을 자유롭게 개별 탐구활동지에 작성한다.</p> <p>• 작품의 의미 또는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본다.</p>	개별 학습	-비지시적, 정서적, 연상적 질문 등으로 개인적인 반응을 촉진 하며 작품에 대해 세밀 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하기

			<p>-작품의 질감은 어떤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첫 느낌과 형식적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한다. • 작품의 의미 또는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p>-작가는 이런 형식을 사용하여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p>			
	연구 과제 설정 (10분)	작품에 대한 가설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들에 나타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한다. • 모듈별로 작품의 의미, 의문점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다. • 토론 후 한 작품을 선택하게하여 의문점과 해당 작품의 가설질문지를 배부하여 연구방향을 계획해보도록 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에 대해 교사는 모듈 별로 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들에 나타난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 한다. • 모듈별로 작품의 의미, 의문점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한다. • 토론 후 한 작품을 선택하여 작품의 의문점과 교사가 나누어준 가설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계획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에 대해 모듈별로 교사와 논의한다. 	모듈 별 토론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검색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안내하기
정리 (5분)	본 시 학습 정리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목표 상기 시킴 • 모듈별로 의문점과 가설 질문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 탐구해보도록 공지한다. • 개별 탐구 활동지 수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목표 상기 • 개별 탐구 활동지 제출 	전체 학습	-집중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
	다음 차시 안내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수업 안내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내용 숙지 • 인사 		

<h1>• 감상 - 조선시대 산수화</h1> <p>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감상 (1차 시)</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이상은</p>	<p style="text-align: center;">● 학습 목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작품 감상 후 개인적인 느낌을 말할 수 있다. 2.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작품의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계획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미술의 비평적 탐구란 ?</p> <p>미술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찾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i>즉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자료를 조사하여 판단의 기준을 찾아가는 활동</i></p>	<p style="text-align: center;">학습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과의 직면(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2. 각 작품의 명료화 3. 작품 선택 및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계획 4. 연구 활동 및 가설 추론 5. 가설 검증 6. 선택한 작품의 신문기사 작성을 통해 탐구의 결론적용 7. 신문기사 작성 후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산수화 관련 영상물 감상</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의미를 담은 작품. 이이남. 미디어 영상물 1분11초</p>	<p style="text-align: center;">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안경(安景). 1447년(조선시대 초기). 비단에 물채. 38.7x106.5cm. 일본 방리대학교 소장</p>
<p style="text-align: center;">몽유도원도의 형식적 특성</p> 	<p style="text-align: center;">개별 탐구 활동지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몽유도원도의 첫인상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 작성하기 2. 몽유도원도의 형식적 특성에 대하여 작성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p>  <p style="font-size: small;">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정선(鄭善), 1751년(조선시대 후기), 비단에 달재, 79.2x138.2cm, 호림미술관</p>	<p style="text-align: center;">인왕제색도의 형식적 특성</p> 
<p style="text-align: center;">개별 탐구 활동지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왕제색도의 첫인상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을 작성하기 2. 인왕제색도의 형식적 특성에 대하여 작성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모둠별 토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작품의 의미, 또는 의문점 생각해보기 2. 모둠별 토론 후 한 작품을 선택하여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방향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몽유도원도 2)인왕제색도 3.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차 시 예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주론하고 결론 내려 보기 2. 선택한 작품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에세이 작성하기 3.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새로운 학습에 적용하기(신문기사 작성법 학습) 	

수업 이해 관련 유인물1

▶ 미술에서의 비평적 탐구란?	
<p>미술 작품의 좋고, 나쁨의 타당한 기준을 찾는 것으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판단의 기준을 찾아가는 활동이다.</p>	
▶ 학습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과의 직면-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 각 작품의 명료화 • 작품 선택 및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계획 • 연구 활동 및 가설추론 • 가설 검증 • 가치가 판단된 작품의 신문기사작성을 통해 결론 적용 • 신문기사 작성 후 발표 	
▶ 작품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가 : 안건(安堅) • 제 목 :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 제작년도 : 1447년 (조선 시대 초기) • 재 질 : 비단에 담채 • 작품크기 : 38.7cm x 106.5cm • 소장장소 :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가 : 정선(鄭敼) • 제 목 :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 제작년도 : 1751년 (조선 시대 후기) • 재 질 : 비단에 담채 • 작품크기 : 79.2cm x 138.2cm • 소장장소 : 호암미술관 • 특 징 : 국보 216호

개별 탐구 활동지

▶ 개별 탐구 활동지	
반:	번호: 이름:
<p>▶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설명해 보세요.</p>	<p>▶ 겸제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설명해 보세요.</p>
<p>▶ 몽유도원도 형식적 특성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 • 작품의 표현 형식 • 작품의 조형요소 (선) (색채) (형) (질감) 	<p>▶ 인왕제색도 형식적 특성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 • 작품의 표현 형식 • 작품의 조형요소 (선) (색채) (형) (질감)

모듬별 가설질문지1

▶모듬별 가설질문지 (몽유도원)	
모듬이름:	모듬 원 이름:
1.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작품의 느낌은 환상적인가요? 왜 그렇게 묘사했나요?	
3. 작품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묘사된 나무와 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4. 작품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5. 작품이 창작된 시대는 어떠했나요?	
6. 모듬 토론 후 의문점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모듬별 가설질문지2

▶모듬별 가설질문지 (인왕제색도)	
모듬이름:	모듬 원 이름:
1.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작품의 느낌은 현실적인가요? 왜 그렇게 묘사했나요?	
3. 작품의 오른쪽 밑에 부분에 묘사된 기와집은 누구의 집이며, 어떤 의미인가요?	
4. 작품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5. 작품이 창작된 시대는 어떠했나요?	
6. 모듬 토론 후 의문점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표 11>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



대단원	감상	중단원	조선시대 산수화	소단원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이해	차시	2/3
학습 주 제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의미를 찾아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학습 목 표	1. 선택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추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새로운 학습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신문기사 작성법을 알 수 있다.						
합 습 자 료	교사				학생		
	PPT, 참고작품(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에세이 활동지, 수업 이해 관련 유인물 2				학습자료, 필기도구		
학습 단 계	학습 요 소	탐 구 과 정	교수-학습 내용		학 습 유 형	유 의 점	
도 입 (5분)	수 업 준 비 확 인		• 인사 및 출석 점검 • 수업 분위기 환기	• 수업태도 준비	전 체 학 습	-집중 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	
	전 시 학 습 확 인		• 전시학습 내용 질문 및 확인	• 전시학습 내용 답변			
	학 습 내 용 목 표 확 인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진행의 흐름 설명	• 학습목표 따라 읽기			
전 개 (35분)	가 설 결 과 추 론 (13분)	가 치 판 단 을 위 한 추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체 토론하도록 한다. •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고 의문점과 자신이 속한 모둠의 가설 질문에 대해 검토 및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 하도록 한다. -탐구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탐구 후 작품을 다시 보았을 때 처음 느낌과 무엇이 다른가요? •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체 토론한다. •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고 의문점과 자신이 속한 모둠의 가설 질문에 대해 검토 및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 한다. •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에세이를 작성한다. 	모 듬 별 발 표, 전 체 토 론, 개 별 학 습	-조사한 자료에 관한 개념이나 기법에 관한 부연 설명은 하되 판단과 관련된 해설은 유보함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한다.			
가설 검증 (12분)	작품의 가치 판단의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선택하여 탐구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여러 정보와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보고 결론을 내려 타당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선택한 작품에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생각하나요? -선택한 작품의 주제 표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학생들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몽유도원도는 조선 시대 초기 안건의 작품으로 안평대군의 도원을 거닌 꿈을 묘사한 이상적 산수화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조선 시대 후기 정선의 작품으로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경험적 산수화입니다. -두 작품의 감상에 비평적 탐구활동을 통하여 조선 시대 회화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듬별 선택한 작품의 가치를 검증 했으니, 새로운 학습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선택하여 탐구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야기한다. • 여러 정보와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 타당하게 검증한다. • 교사의 정리 내용에 귀 기울인다. • 모듬별 선택한 작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적용을 위한 새로운 학습에 준비한다. 	전체 토론 및 학습	-비평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 시킴	
새로운 학습 전개 (10분)	적용 및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에 관한 이해 관련 유인물2 배부 -신문기사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이 있어야 하고, 6하 원칙의 기준으로 명확하고, 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에 관한 이해 유인물을 보고 교사의 설명에 경청 후 학습한다. • 미술 기사 예시를 통해 이해한다. 	전체 학습 및 모	- 결론을 적용하는 새로운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전개시킴	

			적이고, 간결하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미술기사의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 모둠별로 신문기사 작성을 위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신문기사 작성을 위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토론한다.	동 별 토 론	
정리 (5분)	본 시 학 습 정 리 (3분)		• 본시 학습 목표 상기 시킴	• 본시 학습 목표 상기	전 체 학 습	-집중 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
	다 음 차 시 안 내 (2분)		• 다음 차시 수업 안내 • 에세이 활동지 수합 • 인사	• 다음 차시 내용 숙지 • 에세이 활동지 제출 • 인사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2차시 수업 PPT와 관련 자료

<h1>•감상-조선시대 산수화</h1> <p>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감상 (2차 시)</p> <p><small>정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이영순</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 학습 목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주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새로운 학습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신문기사 작성법을 알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탐구 결과 발표 및 에세이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둠별 발표와 전체 토론 후 새로운 의견 수용 2. 모둠별 의문점과 가설질문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추론 3.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에세이를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작품의 가치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정보와 토론을 통해 선택한 작품의 의미 해석 및 결론을 내려 타당하게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몽유도원도-이상적 산수화 2)인왕제색도-경험적 산수화

<p style="text-align: center;">신문기사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2. 알 필요가 있는 것 3. 반드시 알아야 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즉 독자가 관심을 갖거나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소식</p>	<p style="text-align: center;">신문기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2. 기자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 기사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 4. 한쪽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문기사 작성기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2. 명확해야 한다. 3. 객관적이어야 한다. 4. 간결해야 한다. 5. 쉬워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미술신문기사 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749 715 976 950"> <p>인간 '용유도원도'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p>  <p>조선시대 문인화가인 김홍도의 '용유도원도'가 13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발견된 후 2013년 국내로 돌아왔다. 용유도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용유도에서 13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발견된 후 2013년 국내로 돌아왔다.</p> <p>▶ 용유도원도 신문기사</p> </div> <div data-bbox="986 766 1209 950"> <p>[TV 가이드] 국보 '인왕제색도'에 숨겨진 사연</p>  <p>국보 '인왕제색도'에 숨겨진 사연. 이 작품은 조선시대 문인화가인 김홍도의 '인왕제색도'에 숨겨진 사연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문인화가인 김홍도의 '인왕제색도'에 숨겨진 사연이다.</p> <p>▶ 인왕제색도 신문기사</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차 시 예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신문기사 작성해보기 2. 작성한 신문기사 발표해보기 	



수업 이해 관련 유인물2

<p>▶신문기사란?</p>
<p>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즉 독자가 관심을 갖거나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소식이다.</p>
<p>▶신문기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p>
<p>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정확하고 진실 되어야 한다. 2. 기자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 기사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 4.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p>▶신문기사 작성 기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Who(누가), When(언제), Where(어디서), What(무엇을), How(어떻게), Why(왜) 각각의 요소들은 가능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지만 전후관계로 보아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한두 가지 정도는 생략도 가능하다. 2. 명확해야한다. 기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누가 읽어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은 금물이다. 3. 객관적이어야 한다. 기자는 사실의 전달자로서 만족해야 한다. 만일 기자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을 표현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사실 또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4. 간결해야 한다. 한 문장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고(대체로 30자 이내가 무난하다), 아무리 길어도 1백자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쉬워야 한다. 기자는 자신이 기사를 쓰려는 주제에 대해서 독자가 사전지식이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신문을 읽는다고 가정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

<표 12>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 3차시

대단원	감상	중단원	조선시대 산수화	소단원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이해	차시	3/3
학습 주 제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의미를 찾아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학습 목 표	1.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신문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2. 신문 기사를 외국 사람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다.						
합 습 자 료	교사				학생		
	PPT, 참고작품(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신문기사 활 동지				학습자료, 필기도구		
학습 단계	학습 요소	탐 구 과 정	교수-학습 내용		학 습 유 형	유의점	
도입 (5분)	수업 준비 확인		• 인사 및 출석 점검 • 수업 분위기 환기	• 수업태도 준비	전 체 학 습	-집중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	
	전시 학습 확인		• 전시학습 내용 질문 및 확인	• 전시학습 내용 답변			
	학습 내용 목표 확인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진행의 흐름 설명	• 학습목표 따라 읽기			
전개 (35)	신문 기사 작성 (15분)	적용 및 응 용	• 모듈별로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바 탕으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상기 시키 며, 신문 기사를 작성 하 도록 한다. • 전문용어 등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이 도록 공지한다. • 순회 지도를 하면서 신 문 기사 작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설명해준다.	• 모듈별로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바 탕으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명확성이 나타 나도록 신문기사 작성법 을 상기한다. • 교사의 설명에 귀 기울 이며, 모듈별 구성원들 과 의견을 교환하여 그 동안 탐구한 내용과 새 로운 자료 활용하여 신 문 기사를 작성한다. • 신문기사 작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교사에게 질문 한다.	모 듈 별 토 론	-신문기사 작성에 있어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는 사전에 준비하기	
	신문 기사		• 학생들이 작성한 작품의 신문 기사를 학교원어민	• 모듈별로 작성한 신문 기사내용을 학교 원어민			모 듈

	발표 (15분)		<p>교사에게 발표하도록 한다.</p> <p>-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학교 원어민 선생님을 초빙하였습니다.</p>	<p>교사에게 자신 있게 발표한다.</p> <p>• 모둠별로 작성한 신문 기사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다.</p>	별 발 표	<p>초빙하기</p> <p>-신문기사 발표가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듣도록 지도하기</p>
	내용 정리 (5분)		<p>• 총 3차시에 걸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p> <p>-우리나라 조선시대 산수화의 몽유원도와 인왕계색도를 먼저 자유롭게 감상하고 의문점과 가설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며 가치를 검증하는 시간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해 보았습니다.</p> <p>-가치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여 원어민 선생님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산수화 감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p> <p>-이제 미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는지 알게 되었나요?</p> <p>-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문화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생활화 하도록 합시다.</p>	<p>• 설명을 듣고 몽유도원도와 인왕계색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p> <p>• 비평적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을 생활화 하며,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를 애호하는 태도를 갖는다.</p>	전 체 학 습	<p>-수용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워 보고 직접 탐구하고 비평하여 생활화 하도록 독려</p>
정리 (5분)	본 시 학 습 정 리 (3분)		<p>• 본시 학습 목표 상기 시킴</p>	<p>• 본시 학습 목표 상기</p>	전 체 학 습	<p>-집중시키고 소란스럽지 않게 주의 시키기</p>
	다 음 차 시 안 내 (2분)		<p>• 다음 차시 수업 안내</p> <p>• 신문기사 활동지 수합</p> <p>• 인사</p>	<p>• 다음 차시 내용 숙지</p> <p>• 신문기사 활동지 제출</p> <p>• 인사</p>		

<h1>● 감상-조선시대 산수화</h1> <p>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감상 (3차 시)</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경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이양순</p>	<h2>● 학습 목표 ●</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신문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2. 신문 기사를 외국 사람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다.
<h3>신문기사 작성 방법 상기</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내용은 사실, 정확, 진실, 공정, 균형을 이루고 기자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 6하 원칙을 기본으로 명확하고, 간결하며, 쉬워야 한다. 	<h3>신문기사 내용 발표</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인왕제색도(仁王齊色圖)</p> </div> </div>
<h3>학습 내용 정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자유롭게 감상 • 의문점과 가설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토론 • 선택한 작품의 가치를 검증 • 선택한 작품의 가치의 결론을 신문기사 작성 • 신문기사 내용을 원어민 선생님에게 소개 	<h3>학습 마무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 감상에 있어 수용적 감상이 아니라 가설을 세워보고 직접 탐구하고 비평하여 작품을 감상 하도록 합시다.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문화의 가치를 깨닫는 활동을 생활화 합시다.
<h2>★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감상을 마칩니다.</h2>	

V. 결 론 및 제 언

전통미술에서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산수화 감상 수업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정보화, 세계화, 지구촌 시대로 인해 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를 비평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전통 미술에서 산수화의 특징은 자연중심,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는 세계를 추구하며 작가의 인격정신이 구체화 되어 표현된 회화 장르이다. 따라서 물질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성과 정신성을 존중하는 산수화의 감상은 오늘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자세를 심어줄 수 있다.¹³⁷⁾ 또한 전통 산수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회화의 주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적 가치 또한 크다.

특히,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한국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조선 시대 초기작품의 몽유도원도는 구도, 공간의 처리, 평원(平遠), 심원(深遠), 고원(高遠)의 대조로서 산수화의 특징인 원근법이 갖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고, 안평대군과 당대 문인들의 시와 글씨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더불어 이 작품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소장되어있음을 인식시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조선 시대 후기 진경산수화로써 우리 산천의 실제 경치를 경험하여 묘사한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감상 수업은 이상적 산수와 경험적 산수의 내용과 우리나라 회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전통 산수화

137) 고숙자 외, 위와 같은 책, p. 13 참조.

감상교육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통 산수화의 구성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통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감상 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을 적용하여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중심으로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토론을 통한 공동의 학습 활동 및 다양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결론의 적용에 이르는 과정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전통 산수화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평적 사고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감상 지도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하고자 하는 본 지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비평적 탐구의 개념과 듀이의 탐구 이론의 삶과 경험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반성적 사고, 즉 탐구과정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발전시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에만 있는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미적 개념과 비평 기술지도, 학생 연구 활동의 세 가지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실천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산수화 감상 사례들을 살펴보고, 기존 산수화 감상의 새로운 방안으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비평적 탐구 이론의 교수-학습 체계, 탐구를 유도하는 발문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전통 산수화의 의미와 가치를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감상활동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중학교 전통 산수화 감상 교육을 위한 발전적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은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를 중심으로 감상하였다. 그러나 작품 선정에서 본 연구자가 제시한 두 작품의 산수화뿐만 아니라 미술사적으로 교육적 의의가 있는 벽화, 불화, 풍속화, 민화, 문인화 등 우리 미술 문화의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정하여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본 교수-학습 지도안은 몽유도원도와 인왕제색도의 비평적 탐구과정으로서의 감상으로 결론 적용에 작품의 신문기사를 작성하여 우리 미술문화의 가치를 소개하는 발표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결론의 적용에 심화 활동으로 작품의 표현 기법이나 방법을 통해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생이 직접 한지를 배접하고 표현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비평지를 만들고 붓으로 비평문을 작성하거나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비평지를 창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표현활동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전 영역에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전통 산수화 감상에서 학생 스스로 지루함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관점으로 전통 미술이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생태의 관점으로 표현과 감상이 연계된 활동, 통합교과의 관점으로 국어와 미술의 연계를 통하여 시(時), 서(書), 화(畫)를 함께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 패러디의 관점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위나 모습 등을 바탕으로 초대장을 창작하여 세계의 문화 속에 우리 미술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겠다.

비평적 탐구를 활용한 전통 산수화 감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적 안목과 비평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전통 산수화를 비롯한 우리 미술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감상교육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단행본 >

- 교육인적 자원부, 『2009년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 강관식 역, 『중국회화 이론사』, 돌베개, 2010
- 고숙자 외 13,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 학지사, 2005
-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사상으로 조선시대와 소통하다』, 민속원, 2012
- 김기주 역,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 김성숙 외 8, 『미술교육과 문화-2판』, 학지사, 2007
-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1992
- 박차지연,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2005
- 박휘락,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SIGONGART, 2003
- 변영섭 외 3역, 『화안』, 시공아트, 2004
-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상(上), 하(下), 삼성출판사, 1991
- 신영복, 『나의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4
-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4, 『한국 그림의 전통』, 사회평론, 2012
- 윤석홍, 『사건취재와 기사 쓰기 첫 걸음』, 기파랑, 2007
- 이성도 외 3 지음, 『전통미술문화교육』, 미진사, 2005
- 조용진, 배재영, 『동양화한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2002
-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과 문화』, 역사와 문화, 1998
-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9, 『한국 회화의 미』, 미술과 문화 2012
- 최완수 외 지음, 『진경시대 (1.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8
- Zeltner, P. M, 『존 듀이 미학 입문』, 예전사, 1996

< 학술 논문 >

- 김연희, 「질적 탐구로서의 미술비평- John Dewey의 관점에서 미술비평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23권 1호, 2009
-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권, 1999,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의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 김창식, 안현주, 「비평을 통한 감상 교육의 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제14집, 1999
- 김혜숙, 「전통산수화의 자연관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재해석 및 철학적 담론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1권, 2001
- 김혜숙, 이성도, 「전통미술문화교육의 중요성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2권, 2005
- 류재만, 「미술 감상·비평 학습에서 발문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8권 1호, 2004
- 이영희, 「초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미술비평 학습의 방향과 실천 방안 모색」, 『미술교육연구논총』, 제13집 2호, 2002
- 이은적, 「미술과 에서의 비평 능력」, 『조형교육』, 제22권, 2003

< 학위 논문 >

- 김지원, 「G. Geahigand의 비평적 탐구 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안해련,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전통회화 감상 지도방안 연구 - 정선의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양재진, 「펠드먼과 게히건의 미술 비평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이로사, 「비평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 감상 지도방안연구 -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이재영, 「초등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미술비평학습의 방향과 실천 방안 모색」,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lan for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Appreciation in Middle School using Critical Inquiry

–Focusing on Mongyudowondo and Inwangjaesaekdo–

Sang soon Lee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tudents in modern society are getting touch with visual images on the basis of diverse information.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side effects as they take many images of these diverse informations with imprudence. Moreover, the reality is that students do not know well of our culture with western way of thinking in the process of receiving cultures of various countr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refore, Students themselves have to build up ability and identity to choose world cultures independently, standing on the attitude of seeing visual images with critical way of thinking and comprehension of the values of our culture

Accordingly, this article applies Geahigan's critical inquiry process to appreciation for traditional arts in order to achieve appreciation education for arts effectively, as a new way of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The target layer is middle-school students who focus on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that works of art contains. The contents are plans of appreciation guidance mainly on our traditional landscape arts and Mongyoudowondo,

Inwangjesakdo

This research is designed for study on guidance plans of traditional landscape arts appreciation in middle-school applying critical inquiry, as follows.

1st chapter, Introduction presents the object and necessity, contents and methods, targets and restrictions of traditional landscape arts appreciation plans research.

In chapter 2, understand the definitions of critical inquiry and Dewey's inquiry method, basis of Geahigan's critical inquiry theory, and considering Geahigan's critical inquiry theory expanding these methods and applying to education of art appreciative criticism and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n new appreciative education for traditional arts.

In 3rd chapter, understand the curriculum status for contents related to traditional landscape arts presented in art textbook revised in 2007 and organize methods, and exhibit the existing cases as appreciation of landscapes utilizing appreciation reflected on view of nature and drawing theory.

In chapter 4, present three points of view as like desirable roles of teachers, teaching-learning guidance system, recommendation inducing inquiry. And present the basics of guidance for teaching plans of traditional arts appreciation. Also, plan appreciative activities that introducing students of meanings and values of traditional landscapes to by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In chapter 5, present guidance of appreciation through total 3 times including theoretical explanation of Mongyoudowondo and Inwangjesakdo for effective appreciation guidance based on Geahigan's critical inquiry theory.

As for this article, I hope students are able to appreciate our traditional arts actively, not passively based on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arts education, furthermore, build up the attitudes to accept independently many visual images in modern society by the critical thinking as well as understanding of arts and value judgment.